

출판N

출판 현장에 대한 오늘의 목소리

Vol.16 2020.11

책문화의 현재(Now)와 미래(Next)를 그리는 매체(News)로 다양한 목소리와 연대, 연결을 지향(Network)하는 출판 전문 웹진입니다.

「출판N」은 국내외 출판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이슈 제시와 분석을 통하여 담론 형성의 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출판계의 목소리를 담아 출판시장 확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Contents

커버스토리: 여성작가 전성시대

한국 문학의 새로운 바람, 여성의 힘 허희	1
여성작가 르네상스, 공감과 위로로부터 정여울	5
여성작가의 책을 사고 읽는 독자는 누구인가 구환희	10

정책zoom인

‘취학 전 천 권 읽기’,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이지유	18
--------------------------------	----

출판가 핫&쿨

서점에서 과학하기 이명현	24
성교육 어린이책 불온시비는 시대의 퇴행 김대유	29
슬기로운 출판인 생활 김선영	33

인사이드

종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성기태	39
[에세이] 책은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것이지만 박사	45
[인터뷰] 마포에서 시작된 출판계 희망의 불씨 김현호	50
[책과 공간 2] 일(Work)과 삶(Life)의 균형, 책문화공간	56

해외리포트

[중국] 중국 웹소설 시장 현황과 워원그룹 김택규	62
[독일] 코로나19가 독일 도서시장에 미친 영향 장성준	67
[프랑스] 새로운 한국 추리소설에 빠져들어 강미란	74

[여성작가 전성시대] 한국 문학의 새로운 바람, 여성의 힘

허희(문학평론가)

2020. 11

바야흐로 여성 작가 전성시대다. 여성 작가들의 작품은 누가 사는가? 올해 한국 소설을 구매한 사람은 70%가 여성이다. 20대·30대·40대 여성들이 고루 여성 작가의 작품을 손에 들었다(〈한국소설 판매 역대 최다… 신진작가·청소년·SF 인기〉, 뉴시스, 2020년 9월 22일). 표면적으로 보면 여성 작가가 쓴 글을 여성 독자가 (수동적으로) 읽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 독자가 여성 작가의 글을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명 없이 오늘날 한국 문학장을 살피는 일은 불가능하다. 여성 작가 전성시대의 도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작품 자체에 국한된 내재비평보다는, 작가 및 독자와 미디어 환경을 염두에 둔 출판비평의 시각에서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보려 한다.

베스트셀러를 검토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공통점이 명확해 보인다고 해서 이를 하나의 원리로 환원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올해 교보문고 기준 한국 소설 베스트셀러 목록에 9명의 여성 작가가 이름을 올린 것은 맞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된 여성 작가 모두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여성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담은 이야기를 써서 여성 독자의 지지를 얻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분석하면 오류가 생긴다. 거기에 부합하는 소설은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2019),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2019), 정세라의 『시선으로부터』(2020) 정도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경험한 열다섯 살 소년 동호를, 손원평의 『아몬드』(2017)는 감정 처리에 곤란을 느끼는 열여섯 살 소년 윤재를, 이희영의 『페인트』(2019)는 국가가 설립한 센터에서 자란 열일곱 살 소년 제누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황영미의 『체리새우 : 비밀글입니다』(2019)는 열다섯 살 소녀 다현이 중심인물이지만 학교 내부의 집단 따돌림 문제와 어긋난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소설이고, 이도우의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2004)과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2018)는 젠더 갈등을 초점화한 작품이 아니라 남녀의 섬세한 로맨스를 전면화하는 소설이다. 그러므로 여성 작가가 쓴 소설을 곧바로 여성 서사로 치환하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잘 알려져 있듯이 베스트셀러는 '작품성'만으로 탄생하지 않는다. 출판계 또한 시장인 한에서, 이곳에서도 다양한 동역학이 작용한다. 예컨대 『아몬드』의 차트 역주행이 그렇다. 창비청소년문학

상을 받으면서 2017년 이미 화제가 됐던 이 소설이 2020년에 재조명받은 까닭은 두 가지 요인 덕분이다. 하나는 올해 이 작품이 아시아권 작품으로는 최초로 ‘일본 서점 대상 번역 소설상’을 받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글로벌 팬덤을 구축한 아이돌 그룹 BTS가 리얼리티 방송에서 이 책을 소개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작품 외부 요소의 고려 없이 여성 작가의 약진을 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성 작가가 집필한 소설을 여성 문학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는 데 그칠 게 아니라(그것은 헤밍웨이와 카프카를 남성 작가로 뭉뚱그리는 잘못과 다르지 않다), 장르와 주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한다. 원작의 드라마화나 영화화로 인한 상대적 수혜, 그리고 유명인들의 추천에 의한 판매량 증가의 특수한 우연을 범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물론 왜 특정한 소설이 지금 영상화되었는지, 어쩌서 유명인이 수많은 작품 중 이것을 골랐는지 하는 이유를 따져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여성 작가 전성시대를 거론하는 자리에서 더 부각되어야 하는 것은 작년과 올해 출간돼 인기를 끈 ‘여성 작가의 여성 서사’, 즉 페미니즘의 자장에 놓이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일의 기쁨과 슬픔』, 『시선으로부터』이다.

이상 언급한 세 소설은 페미니즘에 공명하는 여성 독자의 호응을 얻고 있는 작품이다. 실제로 김초엽·장류진·정세랑 작가는 SNS를 통해 20~30대 페미니즘 작가로서 사회적 발언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그에 동감하는 수많은 여성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이 쓰는 작품은 소설로서의 성취도 우수하고, 작가 본인의 평소 언행과 일치하는 메시지가 담긴다. 여기서 특히 강조할 부분은 후자다. 작가 본인의 평소 언행과 일치하는 소설의 메시지, 다시 말해 문인으로서의 삶과 문학이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양상이 팬덤을 형성해 세 작가를 부상시킨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 작가의 소설이 남성(성)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제도를 비판하는 여성 서사에 중점을 두되, 개별 남성을 배제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자의 확장성을 갖는다는 점도 덧붙여둔다.

2020년 한국 소설 주요 문학상 : 100% 여성 작가 수상

한 해 동안 발표된 한국 소설을 후보로 심사하는 주요 문학상 수상 비율 역시 한국 소설 베스트셀러 통계와 궤를 같이한다. 우선 문예지에 실리는 단편 소설과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작품부터 남성 작가의 비중이 감소했다. 노태훈 문학평론가가 지난해 주요 문예지에 발표된 단편소설과 주요 출판사의 단행본 소설을 분석한 결과 남성 작가 작품은 단편 316편 중 92편(29%), 단행본 92권 중 31권(34%)에 불과했다(〈그 많던 남성 소설가는 다 어디로 갔을까〉, 동아일보, 2020년 10월 15일). 풀어서 설명하면 원고 청탁과 출판 계약이 여성 작가에게 쏠렸다는 말이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같은 기사에서 기자는 “남성 작가의 ‘실종’은 소설 독자의 70~80%를 차지하는 20~40대 여성의 소수자로서 겪는 차별, 변화하는 사회적 지위 등을 남성 작가들이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결과”로 지적한다.



〈동아일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코멘트다. 남성 작가들의 역량 부족을 꼬집으면 해결책도 매우 단순해진다. '20~40대 여성이 소수자로서 겪는 차별, 변화하는 사회적 지위 등'에 관한 소설을 남성 작가가 '잘 쓰면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젠더 감수성의 성숙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노력해 갖춰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작가로서는? 쓰고 싶은 것을 쓰면 된다. 문학은 내적 윤리성을 심문하는 예술이지, 외적 도덕성을 설파하는 경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한니발 렉터와 같은 악(인)의 심연을 탐구하는 스릴러 소설 『양들의 침묵』을 쓴 토머스 해리스에게 왜 여성을 연쇄 살인 피해자로 도구화하느냐고, 그러하기에 이는 명백히 여성혐오적인 작품이라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 여성의 발을 탐닉하는 남성 인물이 등장하는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작품을 페티시즘으로 가득한 변태 소설이라고 치부하고 덮어버리면 그만일까.

법은 금지와 처벌을, 종교는 섭리와 당위를 역설한다. 문학은 법적일 수 있고 종교적일 수 있지만, 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다.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겠으나) 문학의 근간은 자유와 해방이다. 이것을 나쁜 소설은 항목으로 규범화해 가르치려 들고, 좋은 소설은 맥락으로 제시해 질문한다. **세상에는 얼마나 다종다양한 인간(성)이 있는지요.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결단하는 인물의 사고와 행동에 대해 독자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 작가나 남성 작가 상관없이 일급 작가는 자기의 작품으로 이렇게 묻는다. 작가는 누가 뭐라고 하든 바로 그 일을 계속해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문학장에서 여성 작가의 대두와 남성 작가 실종(?)의 연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그중 하나는 주요 문학상 심사위원을 겸하는 유력 문예지 편집위원 등 문단문학의 운영자가 **소설 독자의 70~80%를 차지하는 20~40대 여성의 소수자로서 겪는 차별, 변화하는 사회적 지위 등에 지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태도**와 연관이 있다.

2010년대 중반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열풍과 그로 인해 드러난 문단 성폭력 사태를 지나오면서, 한국 문학장도 쇄신과 변혁을 요구받았다. 문단 내부에서 가시적으로 시행했던 방침은 문예지 편집위원과 문학상 심사위원의 성비를 동등하게 맞추거나, 아니면 여성의 비율을 더 늘리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한겨레문학상의 경우 작년과 올해 심사위원 전원을 여성 문인으로 위촉했다. 다른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낸** 여성 서사를 긍정하고 후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주최의 조치다. 그렇게 '고학력 비정규직 여성의 일하는 이야기'인 서수진의 『코리안 티처』가 2020년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남성 편향으로 기울어진 기존 문학장의 균형을 바로잡으려면 이 정도의 강력한 무게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문학장 내외부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한국 문학장의 페미니즘적 정치성은 2010년대부터 이어진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시대정신과 조응

한다. 그런 한에서 그동안 비가시화되었던 여성의 구체적 현실을 그려낼 수 있도록 문예지에서 여성 작가에게 단편 소설을 청탁하고, 문학상을 여성 서사에 수여하는 실전은 문학장에 속한 다수에 의해 용인된다. 되풀이하지만 문학장은 유기체로서 끊임없이 변한다. 문학장을 이루는 여러 주체의 역학 관계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과거에는 문학 권력을 작가가 보유했다면 현재에는 독자가 행사한다. 그러는 데는 미디어 패러다임의 전환, 곧 SNS의 영향이 컸다. 오늘날 출판사는 신문·라디오·TV 같은 구미디어가 아니라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에 도서 홍보 역량을 집중한다. 그곳이 책을 읽는 독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요즘 독자는 책을 감상만 하지 않는다. 책과 저자에 관해 SNS에서 활발히 논평한다. ‘좋아요’와 ‘공유(리트윗)’가 많이 된 의견은 작가와 출판사도 참고하고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한국 소설 독자의 70%가 여성임을 주지한다면 소비자로서 그들의 견해가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에게 환류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단 성폭력 사태로 인해 여성 독자는 삶이 문학을 배반하는 남성 문인에게 환멸감을 느꼈다. 문단 성폭력의 주범으로 밝혀진 남성 문인이 쓴 책을 버리면서 이들의 작품을 다시는 읽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위에 서술한 대로 삶과 문학이 들어맞는 여성 문인과 그 작품에 눈길을 보냈다. 상술한 바 (SNS를 통해 20~30대 페미니즘 작가로서 사회적 발언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그에 동감하는 수많은 여성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김초엽·장류진·정세랑 작가의 팬덤이 대표적이다.

여성 작가 전성시대를 작가 및 독자와 미디어 환경을 염두에 둔 출판비평의 시각에서 대략적으로 한 스케치를 마치면서 첨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글에서는 논의 전개상 어쩔 수 없었으나, 미래의 한국 문학장에서는 ‘여류’라는 호칭을 거부했던 박경리 작가의 사례처럼 ‘여성 작가가 쓰는 여성 서사’를 우리 문학의 예외적이고 특별한 케이스인 양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 재론하되 그것은 헤밍웨이와 카프카의 소설을 세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남성 작가가 쓰는 남성 서사’로 대강 뭉쳐 싸는 허물을 반복하는 일이다. 거명된 김초엽·장류진·정세랑·손원평·이도우·한강·황영미·이희영·서수진·최진영·정지아·김유담·강화길·백수린·최윤·강영숙·김숨·한유주는 여성 작가로 통칭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자신만의 스타일로 개성적인 소설을 쓰는 별개의 작가이다. 남성 작가 전성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성 작가 전성시대가 특이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에서 그들은 단지 작가일 테다.

허희(문학평론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2012년 문학평론가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문학 팟캐스트 <낭만 서점> 진행자로 일하면서, 여러 방송에 출연해 책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성작가 전성시대] 여성작가 르네상스, 공감과 위로로부터

정여울(작가, 평론가)

2020. 11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킨 대부분의 작품이 여성작가의 작품이 된 지는 오래됐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한국 최초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페미니즘 소설로서는 드물게 100만 부를 돌파하고 영화로까지 제작되며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 작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어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보건교사 안은영』의 정세랑 작가, 『7년의 밤』, 『종의 기원』, 『진이, 지니』로 국내외 많은 팬을 두텁게 거느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 정유정 작가. 최근 몇 년간 서점가 베스트셀러 코너를 장악하고 문학상을 석권한 작가는 대부분 여성이다. 『쇼코의 미소』와 『내게 무해한 사람』 두 작품집만으로 독자에게 단단히 눈도장을 찍은 최은영 작가, 『너무 한낮의 연애』,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로 이어지는 연타석 홈런으로 설 새 없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김금희 작가, 『백의 그림자』, 『디디의 우산』, 『연년세세』 등으로 평단의 주목과 베스트셀러 진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황정은 작가,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청소년 소설로 시작해 『파과』, 『네 이웃의 식탁』 등으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보여주며 사랑받고 있는 구병모 작가. 『달려라, 아비』와 『두근두근 내 인생』, 『바깥은 여름』으로 출간하는 모든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된 김애란 작가의 인기는 데뷔 직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다. 『푸르른 틈새』, 『내 여자의 열매』, 『안녕, 주정뱅이』 등 수준 높은 단편집으로 오랫동안 독자에게 사랑받은 권여선 작가의 인기도 식을 줄 모른다. 청소년 소설 부문에서 4년째 부동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아몬드』를 쓴 손원평 작가는 장편 영화감독으로도 데뷔하여 큰 사랑을 받았다. 이렇듯 2010년대 이후 여성작가의 활약상은 워낙 다양하여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여성작가의 르네상스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사회현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페미니즘이 재조명되고, 세계적인 미투 현상에 대한 여성들의 주체적인 인식이 급증하면서, 여성이 이끌어 가고, 여성이 만들어 내고, 여성이 주도적으로 읽는 문학작품이 함께 급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은 페미니즘의 아이콘이 되었다. 출간 당시 신인작가의 작품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과 함께 커다란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82년생 여성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이름이 바로 ‘김지영’이었고, 바로 그런 평범한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면서 가슴 아픈 경력 단절과 우울감을 겪는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냈

다. 수십 개국에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배우 정유미, 공유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흥행 또한 성공했다. 또한 2020년에는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름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엄청난 성공이 아닌 단지 '오늘 나의 일자리'를 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아이를 키우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편하게 마시지 못하는 엄마를 '맘충'으로 몰아가는 사회에 대한 뼈아픈 성찰. 그것은 단지 베스트셀러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 '현대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여성작가 전성시대가 열린 것은 여성작가의 작품이 훌륭하기 때문이다.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와 『내게 무해한 사람』은 독자의 뜨거운 입소문을 타고 감동과 공감의 릴레이를 이어가며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SNS와 유튜브에 빼앗긴 우리의 따스한 감수성을 되찾게 해 주는 아름다운 문장이야말로 최은영을 비롯한 여성작가들이 유감없이 발휘하는 특징이다. 특히 화려한 수사 없이도 따스한 감성을 자극하는 수많은 인물, 트라우마로 인해 깊은 상처를 가졌지만 그 상처에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는 강인함과 지혜로움을 지닌 인물이야말로 최은영 소설의 트레이드마크다. 아주 작은 상처에도 바스라질 듯 연약한 심성과 함께 타인의 상처를 향한 극도의 배려심과 예민함을 가진 최은영 소설의 인물은 우리 주변 착하고 따스한 사람의 전형이다. 과도한 자극과 공격성이 다분한 매스미디어 속 주인공에 지친 독자에게, 최은영 소설은 내성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치유의 힘을 가진 주인공을 데려와 속삭인다. 미주알고주알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이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고. 당신이 깊이 상처입었음을. 오랫동안 우울하고 외로웠음을. 다 이해해 줄 것만 같은 따스한 인물이야말로 최은영 작가의 소설에 독자가 오랫동안 열광하는 이유 아닐까.

사람이란 신기하지. 서로를 쓰다듬을 수 있는 손과 키스할 수 있는 입술이 있는데도,
그 손으로 상대를 때리고 그 입술로 가슴을 무너뜨리는 말을 주고받아.
난 인간이라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 「모래로 지은 집」(『내게 무해한 사람』, 최은영) 중에서

여성작가의 서사가 예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급증한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서로를 돕고 치유하는 '여성 연대 서사'가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남성과의 경쟁 속에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뛰어날 것'을 요구받으며,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더 쉽게 노출되는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위로하는 작품이 독자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런 밤이 있었다.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밤. 나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용할지도 모를, 그리하여 나를 낙담하게 하고 상처 입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 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은 밤이 있었다.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만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고 나의 신에게
조용히 털어놓았던 밤이 있었다.

- 「고백」(『내게 무해한 사람』, 최은영) 중에서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에서도 육식을 거부하고 오직 채식을 갈망하는 영혜의 상처와 우울에 유일하게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영혜의 언니였다. 『진이, 지니』에서는 납치당한 보노보 원숭이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육사 ‘진이’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스토리텔링에서 ‘여성적 공감’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이 사회의 숨겨진 공간에서 홀로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에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성적 공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일 것이다. 권력을 공유하는 남성적 유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나쁜 비밀을 지켜 주는 남성적 편들어주기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에게, 여성적 공감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내가 아닌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교감하는 따스한 연대의 감정일 것이다. 여성적 공감이란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권력을 분배하는 연대감’이 아닌, 오히려 ‘권력을 해체하여 약자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연대감’을 뜻한다.

트라우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인간을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트라우마로 인해 ‘여기가 나의 한계다’라는 인식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바로 그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으려는 불굴의 투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
트라우마 이후에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트라우마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사람들도 많다.
바로 이 ‘트라우마 이후의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 진이와 민주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준다. 트라우마는 자칫하면 인간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트라우마를 이겨내려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이
트라우마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 『상처입은 치유자, 트라우마를 넘어 눈부신 사랑의 길로 떠나다』(정여울) 중에서

과거 문단에서는 공지영, 신경숙, 은희경 등 스타작가 중에서 여성작가의 작품이 사랑받았다면, 지금은 신인작가부터 중견작가에 이르기까지 작품세계와 작가군의 활동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강화길, 박서련 등 등단 5년 이내의 작가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제 60대에 접어든 최윤 작가는 변함없는 거장의 손길로 『소유의 문법』을 써 심사위원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찬사와 함께 2020년 이효석문학상을 받았다. 김혜순 시인은 『죽음의 자서전』으로 2019년 캐나다 그리핀 문학상을 받았으며, 편혜영 작가는 장편소설 『홀』로 미국의 문학상 셸리잭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K-팝과 한국드라마에 이어 한국문학 또한 여성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더 큰 사랑을 받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인작가부터 중견작가에 이르기까지, 풍요로운 작가 군단을 촘촘하게 형성하고 있는 한국 여성 문단은 이제 제2의 르네상스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젓가슴이 좋아. 젓가슴으론 아무 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세 치 혀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위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 『채식주의자』(한강) 중에서

손원평의 『아몬드』의 주인공은 감정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독특한 캐릭터다. 뇌의 (아몬드 모양을 닮은) 편도체에 이상이 생겨 희로애락을 비롯한 모든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윤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무엇에도 분노할 수 없는 성격 때문에 성장과 생존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하여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엄마와 할머니를 통해 간신히 학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엄마와 할머니가 눈앞에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본 윤재는 더더욱 커다란 트라우마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태가 된다. 감정이 사라진 세계, 짐작과 상상조차 희미해지고 오직 아주 건조한 팩트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주인공 윤재. 『아몬드』는 이토록 외로운 윤재를 지켜 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사랑과 우정과 격려 속에서 윤재는 ‘엄마’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주체가 영원히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살아남기 위해 분투한다.

매일매일 아이들이 태어난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축복받아 마땅한
아이들이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군가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고 누군가는 군림하고
명령하면서도 속이 비틀린 사람이 된다. 드물지만 주어진 조건을 딛고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괴물로 만드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다.

이 소설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 특히 아직도 가능성이 닫혀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내미는 손길이 많아지면 좋겠다. 거창한 바람이지만 그래도 바라본다.
아이들은 사랑을 갈구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랑을 주는 존재들이다. 당신도
한때 그랬을 것이다.

- 『아몬드』(손원평) 작가의 말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나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으로 고통받는 순간. 그때부터 오히려 윤재 곁에는 새로운 사랑과 우정이 찾아든다. 윤재만큼이나 어두운 트라우마를 간직한 소년 ‘곤이’와의 우정, 너무나도 해맑고 통통 튀는 햇살 같은 성격을 가진 아이 ‘도라’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감정이 기적처럼 싹트면서, 윤재는 편도체에 이상이 생겨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괴물에서 벗어나 ‘우리처럼 느끼고, 우리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감정 세계 속으로 조금씩 다가가게 된다. 감정노동은 많이 하지만, 감정 배출구는 찾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치유와 위로를 찾는 현대인에게, 『아몬드』를 비롯하여 ‘여성적 공감’이 담긴 수많은 소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경쟁과 성공, 각자도생의 마인드로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절실히 갈망하는 것, 그것은 여전히 사랑과 연대와 희망임을.

정여울(작가, 평론가)

KBS 제1라디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성완의 시사夜]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3회 전속희문학상을 수상한 산문집 『마음의 서재』, 심리 치유 에세이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 인문학과 여행의 만남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청춘에게 건네는 다정한 편지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인문 교양서 『헤세로 가는 길』, 『공부할 권리』 등이 있다.

[여성작가 전성시대] 여성작가의 책을 사고 읽는 독자는 누구인가

구환희(교보문고 도서 MD)

2020. 11

올해 노벨문학상은 미국의 시인 루이즈 글릭이 받았다. 이 결정이 뜻밖이라는 논평들도 눈에 띈다. 루이즈 글릭이 최근 수상 작가 중 익숙한 조건이 아닌 ‘여성’과 ‘시인’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이다. 뮤지션인 밥 딜런을 제외하면, 1993년의 토니 모리슨 이후 ‘미국’ 문학가로는 첫 수상이라는 점까지 추가된다.

이 중 여성 작가가 수상자로 이름을 많이 올리지 못했다는 부분은, 현재 국내 문학계의 시선으로 볼 때 다소 낮설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문학상은 여성 작가들이 휩쓸고 있다. 2020년만 해도 현대문학상(백수린), 젊은작가상(강화길), 김승옥문학상(김금희), 동인문학상(김숨) 등 독자들에게 친숙한 문학상들은 모두 여성 작가들에게 돌아갔다. 현재 여성 작가들에게 보내는 평단의 지지는 매우 공고하다.



올해의 문학상 수상작들

그렇다면 여성 작가를 향한 독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최근 여러 언론에서 다뤘던 것처럼 올해 ‘국내 소설’은 전년 대비 높은 판매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을 여성 작가들이 주도한 것인지, ‘여성 작가 강제 현상’이 서점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먼저 짚어보자. 이어서 여성 작가의 소설을 읽는

독자는 누구인지 살펴보겠다.

여성작가가 국내 소설의 성장을 이끌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교보문고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소설 상위 100편 중 여성 작가의 책이 몇 권이 되는지 추려 보았다. 단, '여성 작가의 부각'이라는 이번 호 커버스토리의 경향성을 읽을 수 있는 '한국 문학', 즉 국내 소설에 한정했다. (일부 도서를 제외하면 국외 소설 베스트 목록에서는 이 글의 주제와 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명확한 분석을 위해 국내 소설 안에서도 고전 소설, 청소년 소설, 미스터리 소설 등 '일반 현대소설'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모두 제외하였다. 오늘의 국내 소설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르인 SF, 그리고 『아몬드』와 같은 일부 영어덜트 소설은 포함했다.



국내 소설 베스트 100 중 여성 작가 책의 비중

100종 중 무려 71종이 여성 작가의 소설이다. 2019년 같은 기간의 55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양상이다. 더 먼 과거를 돌아보자.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발표된 2016년의 바로 전 해이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5년, TOP 100 중 여성 작가의 책은 44종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순위	2020년		2015년	
	제목	작가	제목	작가
1위	아몬드	손원평	글자전쟁	김진명
2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싸드(THAAD)	김진명
3위	제1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강화길	뿌리 이야기(이상문학상 작품집)	김숨
4위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도우	정글만리. 1	조정래
5위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7년의 밤	정유정
6위	일의 기쁨과 슬픔	장류진	정글만리. 2	조정래
7위	소년이 온다(특별한정판)	한강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8위	달려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정글만리. 3	조정래
9위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이도우	소년이 온다	한강
10위	보건교사 안은영	정세랑	투명인간	성석제

'2020 vs 2015' 국내 소설 베스트 10

2015년 베스트 목록에서 최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진명, 조정래, 김영하, 성석제 등 남성 작가 사이에 김숨, 정유정, 한강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흥미롭다. 2010년 중 후반 이후 환영받는 인기 작가군이 된 젊은 작가의 책이 많지 않다는 점도 그동안 일어난 변화를 느끼게 한다. 상위 100편 중 여성 작가의 책이 71%를 차지한 것은 역대 최고 비중이다. 게다가 남성 작가의 소설 중 가장 순위가 높은 책은 김훈의 『달 너머로 달리는 말』로 순위는 11위다. 지금 독자들이 서점에서 많이 찾는 문학, 대중적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 문학인 '여성 작가의 작품'이 국내 소설의 약진을 이끈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누가 여성 작가의 책을 읽는가?

여성 '작가' 소설의 주 구매층은 아마 여성 '독자'일 것이라고 추정하게 된다. 여러 대조군과 비교해 보자. 우선, '도서 시장 전체' 그리고 '소설 분야 전체' 모두 여성 독자의 비중이 높다. 올해 교보문고 판매 데이터 기준, 국내 소설과 국외 소설을 합한 '소설 분야 전체' 구매회원 중 여성의 점유율은 약 67%다. 단행본 분야 중 '시/에세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성 독자 비중	비고
도서 전체	61%	
소설 전체	67%	단행본 분야 중 여성 독자 비중 2위
국내 소설 전체	72%	국외 소설은 66%
국내 소설 TOP 100 중 여성 작가 책 (71편)	77%	

소설 구매자 중 여성 독자의 비중

이 글에서 집중하고 있는 '국내 소설'의 경우 여성 독자의 비중은 약 72%다. 소설 분야 전체보다 5% 높다. 국외 소설(약 66%), 미스터리 소설(약 65%), 고전 소설(약 67%) 등 소설 내 다른 분류와 비교해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동일한 '국내 소설' 구매자 기준, 여성 독자는 작년 동기간에는 약 69%, 2015년 동기간에는 약 62%의 점유율을 보였다.

앞서 소개한 '국내 소설 상위 100편' 목록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본다. 100종 중 71편을 차지하는 '여성 작가 책을 구매한 여성 독자 비중'은 약 77%까지 치솟았다. 남성 작가의 책 29편의 경우 여성 독자 비중은 약 60%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여성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과 그 주요 소비층인 여성 독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맞물려 소설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다음은 연령별 현황이다. '국내 소설' 전체 독자 중 최다 구매층은 남녀 전체 중 4분의 1 이상을 차지

하는 20대 여성 독자다. 이들의 비중은 약 26%로, 전년 동기간의 약 23% 대비 3% 정도 증가했다. ('비중'이 3% 증가한 것은 큰 폭의 변화다.) 물론 구매 회원수의 증가도 남녀 전체 연령대 중 20대 여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젊은 층이 책을 읽지 않고, 독자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산업적 인식을 감안하면 20대 독자의 증가는 고무적이다. 20대 다음은 30대(약 20%), 40대(약 16%) 순으로 독자가 많았다. 이 세 고객군을 합치면 약 62%에 이른다.

순위	작가	여성 독자 비중	최다 구매 독자층
1위	정세랑	84%	20대 여성
2위	손원평	75%	40대 여성
3위	이도우	80%	20대 여성
4위	강화길	74%	20대 여성
5위	김초엽	75%	20대 여성
6위	한강	75%	20대 여성
7위	구병모	83%	20대 여성
8위	양귀자	83%	20대 여성
9위	장류진	76%	30대 여성
10위	최은영	80%	20대 여성

2020년 여성 독자가 많이 구매한 작가 TOP 10

올해 여성 독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작가 10인은 모두 여성이다. 작가별로 주요 구매 연령층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점. 여성 독자는 젊은 작가를 지지한다. 열 명 중 정세랑, 손원평, 강화길, 김초엽, 장류진, 최은영 여섯 명이 2010년대에 데뷔한 젊은 작가다. 여섯 명을 포함한 젊은 작가군과 위 작가 9인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들을 통해 오늘 여성 작가를 읽는 독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유추해 본다. (열 명 중 '드라마 셀러'의 영향을 받았던 이도우는 예외로 했다.)

소설 읽는 독자들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폭력과 부조리에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독자가 소설을 읽는다. 가부장제의 모순, 비합리적 직장 문화, 일상과 구조 속 다양하게 내재화된 차별 등 오늘의 젊은 작가들, 그리고 그들의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던지는 시선의 방향은 전방위적이다. 젊은 작가군이 아닌 작가들의 소설도 이 경향과 연결된다. 여성 독자가 많이 선택한 작가 6위인 한강의 책 중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작품은 1980년 5월의 광주를 되살려 낸 『소년이 온다』이다. 7위 구병모의 소설은 날카롭고 현실 비판적이다. 더 놀라운 점은 8위에 이름을 올린 양귀자의 인기다. 80년대 등단한 작가의 90년대 발표작인 『모순』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페미니즘 문학의 모던 클래식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하며 젊은 독자층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구매 독자의 거의 절반인 44%를 (30대, 40대가 아닌) 20대 여성 독자들이 차지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설에 담긴 메시지가 현재

시점에서 유효하기만 하다면, 독자들은 같은 세대인 젊은 작가에 속하지 않는 작가의 책도 기꺼이 읽는다.

두 번째, '내' 존재의 오롯한 독립만큼이나 '남', 타자와의 공존을 중시하는 독자가 소설을 읽는다. 최은영 소설의 인물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로한다. 정세랑은 스스로를 '하드코어한 환경주의자'라 부른다. 한 강연회에서 김초엽은 "내 소설이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귀결되는 것이 싫다."고 말한 적이 있다. 위 순위에는 없지만 역시 올해 주목받은 젊은 작가인 천선란은 『천 개의 파랑』에서 인간, 동물, 로봇 등 종에 무관하게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개체들의 조화로운 연대를 주장한다. 김혜진은 '2인칭' 소설들만 모은 소설집 『너라는 생활』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 번째, '마치 내 이야기 같다'고 느낄 정도의 '공감'을 구하는 독자가 소설을 읽는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배경은 다양하다. 위 작가 10인의 책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그룹은 대부분 20대인데, 유일하게 장류진만 30대가 최다 구매층이다. (손원평의 구매자 중 40대 여성이 많은 것은 『아몬드』가 청소년 소설이기 때문이다.) '픽션인가 다큐인가' 직장인의 희로애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현실 밀착형 공감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30대에게 더 가깝게 와 닿기 때문이다. 같은 해 출간된 김세희의 『가만한 나날』도 결을 같이 하는 단편을 수록했다. 반면 지금 대세 분야가 된 SF는 얼핏 범주가 다를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이야기의 무대가 우주로 확장되고, 육신이 세상에 없는 망자와 소통할 수 있고, 일상에서 상용화된 로봇이 등장하는 SF 소설은 '일상'보다는 '상상'이라는 단어가 어울려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감의 밀도가 높다는 점은 동일하다. 심너울 소설집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의 첫 번째 단편 「초광속 통신의 발명」은 "진짜 퇴근하고 싶다."라는 처음 보지만 이미 백 번은 읽은 것 같은 친밀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SF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일반 소설' 속 주인공들과, 지금 책을 읽고 있는 '나'의 모습은 서로 닮아 있다. 많은 'SF 소설'들이 과학과 기술의 최첨단을 투과해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일반 소설'이 글로 그린 세밀화의 주요 피사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 근심 그리고 갈망이다. (맞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편의상 '일반 소설'과 'SF 소설'로 나누어 적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누가 여성 작품을 읽는가'라는 물음의 답으로 제시한다.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20~40대 여성'이라는 점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여성 독자는 남성 작가를 읽지 않는가?" 그리고 "남성 독자는 여성 작가를 읽지 않는가?"

여성독자가 읽는 남성작가, 남성독자가 읽는 여성작가

작가	출생 연도	여성 독자 비중
김훈	1948	44%
황석영	1943	45%
김영하	1968	66%
김연수	1970	69%
박상영	1988	71%
심너울	1994	75%

2020년 세대별 주요 남성 작가의 여성 독자 비중

여성 독자들은 남성 작가의 책도 읽는다. ‘국내 소설’을 구매한 전체 고객 중 여성의 비중은 약 72%라고 앞서 적었다. 표본으로 뽑아 본 남성 작가들 중 박상영 책의 여성 독자 비중은 약 71%로 전체 평균에 근접했다. 75%인 심너울은 72%를 초과했다. 신인에 가까운 작가일수록 여성 독자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김훈, 황석영 같은 70대에 접어든 남성 작가는 남성 독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박상영과 심너울은 주목받는 젊은 작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박상영은 ‘수상작품집이 가장 많이 팔리는 문학상’인 젊은작가상 대상을 2019년에 수상했다. 심너울은 한국 SF의 새로운 물결을 이루는 작가이자, 굳이 분야의 구분을 논할 것 없이 대표적인 90년대생 젊은 작가 중 한 명이다. 두 작가는 우리가 예전에 만나 보지 못했던 젊고 새롭고 신선한 문학 언어를 구사한다. 상기한 여성 젊은 작가들의 장점과 감각과 개성들을 공유한다. 결과적으로 여성 독자들에게 많이 읽혔다. 내가 필요로 하는 가치들을 담고 있기만 하다면, ‘작가의 성별과 무관하게’ 독자들은 그 책을 읽는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작가가 남성 작가보다 여성 작가, 특히 젊은 여성 작가 중에 월등하게 많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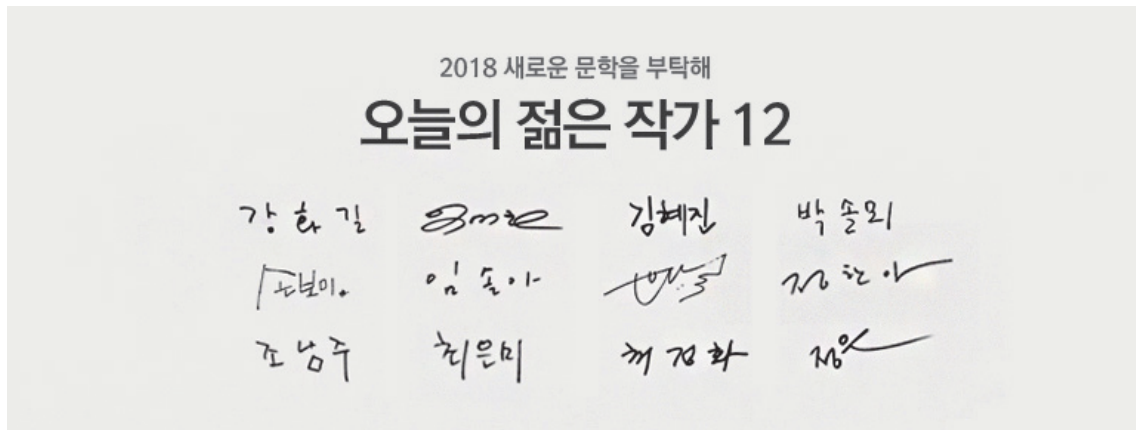
순위	작가	여성 독자 순위
1위	손원평	2위
2위	강화길	4위
3위	정세랑	1위
4위	김초엽	5위
5위	김훈(남)	16위
6위	이도우	3위
7위	한강	6위
8위	황석영(남)	30위
9위	김진명(남)	29위
10위	장류진	9위

2020년 남성 독자가 많이 구매한 작가 TOP 10

그리고 남성 독자의 경우다. 김훈, 황석영, 김진명이 포함된 것만 빼면 선호 작가 TOP 10 명단은 여성 독자의 목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총 열 명 중 일곱 명이 여성 작가다. 게다가 1위부터 4위 까지 최상위 작가는 모두 젊은 작가이자 여성 작가다. ‘여성 작가의 책=여성 독자만 읽는 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의 합, 즉 전체 독자가 읽고 있는 작가와 작품을 ‘대세’라고 부르는 건 어색하지 않다. 지금 소설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주인공은 물론 여성 작가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 핵심 조력자는 여성 독자다. 남성 독자도 이 흐름에 의미 있는 보조를 맞춰 가고 있지만, 여성 독자 대비 비중은 (약 3대7 정도로) 낮은 상황이다.

차이를 부각하지 않으며 책에 대해 말하는 것



2017년 '오늘의 젊은 작가 12' 기획전 배너

3년 전인 2017년 연말, 업무 시간에 문득 여성 작가 강세를 실감했던 순간이 있다. 2018년에 주목해야 할 작가를 추천하는 <오늘의 젊은 작가> 특별전을 준비할 때였다. 작가 12인을 정한 결과 모두 여성 작가였다. 그렇다고 행사명을 <오늘의 젊은 '여성' 작가> 특별전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 만약 대상 작가 12인이 모두 남성이라고 해도 <오늘의 젊은 '남성' 작가>라는 타이틀로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한 작가들의 책들을 다시 생각하며 얻게 된 배움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차이를 부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여성 작가/남성 작가, 여성 독자/남성 독자, 국내 소설/국외 소설, 일반 소설/SF 소설, 젊은 작가/중견 작가 등 많은 '구분'과 '분리'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양해 바란다. '지금의 독자는 과거의 독자보다 여성 작가의 작품을 더 많이 읽는다.'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그 독자는 누구인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구환희(교보문고 도서 MD)

교보문고에서 도서 MD로 일하고 있다. 현재 담당 분야는 소설이다. '먹방'을 보면 먹고 싶은 것처럼, 읽으면 뭐라도 읽고 싶은 욕망이 싹트는 '책방' 장르의 글을 쓰려고 한다.

‘취학 전 천 권 읽기’,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이지유(중랑숲어린이도서관장)

202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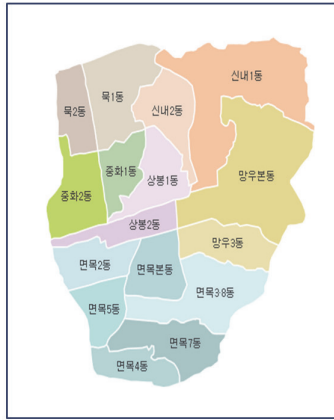
중랑구는 유아부터 노인 세대까지 생애주기별로 독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력인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은 중랑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 열기가 뜨겁다.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은 5세부터 7세까지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고 독서 습관을 기르자’라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5세는 전 두엽과 우뇌가 발달하는 시기로 창의력과 정서발달에 가장 중요하며, 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또한 창의력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종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분은 독서를 통해 언어와 사고,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이 사업은 2018년 중랑구의 대표도서관인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 시작하여, 중랑구 내 총 8,000여 명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2년 동안 진행된 사업은 기대와 달리 7.6%의 저조한 참여율로 600명에 그쳤다.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서관과 담당 사서의 열정은 있었지만, 구민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쳤다.

다시, 기획하자!

‘취학 전 천 권 읽기’는 현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했고, 중랑구 유일한 어린이도서관인 ‘중랑숲어린이도서관’으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필자는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현 사업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어린이도서관 사서와 참여자 의견을 수집하였다.

사업에 참여하는 부모님과 어린이도서관 사서의 의견은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은 제한적인 참여 방법과 지속적인 동기부여 부재, 그리고 한 명의 사서가 8,000여 명의 아동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자는 ‘취학 전 천 권 읽기’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구청, 도서관, 유관기관, 교육기관과의 천 권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운영 기관



'천권읽기 사업'의 구심점

구청을 중심으로 6개 구립도서관이 권역별 거점 역할 수행

협력 기관



'다양한 경로'의 창구 확대

중랑구민이면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조성
6개 구립도서관과 18개 작은도서관 운영

참여 기관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

233개 어린이집, 30개 유치원과의 협력을 통해 유아대상의 참여기회 제공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팀은 도서관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어린이도서관장과 실무 사서 여섯 명, 총 여덟 명으로 구성하고 한 달여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새로운 개편사업을 기획하였다. 개편된 내용으로는 먼저 중랑구민이라면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였다. 또한 독서 습관에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씨앗(1~100권), 떡잎(101~300권), 새싹(301~500권), 꽃(501~700권), 열매(701~1,000권) 등 5단계로 달성목표를 세분화하여 매 단계 달성 시, 다음 단계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닌, 책을 읽고 기록하는 습관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독서기록장도 추가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BI, 슬로건, 캐릭터 등도 함께 제작하여 어린이들이 더욱 친숙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사업 BI



캐릭터



문구 KIT

중랑구는 현재 '책 읽기'에 열풍!

2020년 1월부터 '취학 전 천 권 읽기'는 여섯 개의 구립도서관은 물론, 열여덟 개의 공립 작은 도서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내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260여 개 기관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 참여자는 중랑구 미취학 아동 인구 대비 26.8%, 총 2,132여 명으로 증

가하였다. 또한 천 권을 달성한 어린이는 현재까지 총 36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지만 천 권 읽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은 높았다. 이와 함께 도서관이 아닌, 집에서 책을 읽고 즐기는 가족이 증가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가족 독서'로 연계되었다.

연도	[씨앗]	[떡잎]	[새싹]	[꽃]	[열매]	[달성]	합계
	1~100권	101~300권	301~500권	501~700권	701~1,000권	1,000권	
2018년	295명	9명	4명	2명	1명	2명	313명
2019년	129명	87명	33명	14명	9명	15명	287명
2020년	1,937명	84명	57명	26명	9명	19명	2,132명

본 사업은 독서환경 조성하고 함께 독서 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다. 책과 친숙해지고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만지작 꼼지락' 책 놀이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독서 습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자인 부모님을 대상으로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 연령에 따른 지도법', '우리 집 독서환경 조성법', '책으로 소통하는 법', '영어 그림책 독서법' 등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도서관에서 키우는 우리 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릴레이 강연을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다.

도서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하여 사서, 어린이 전문 교육가, 미취학 아동 학부모, 동화 활동가, 어린이 전문 서점 등을 대상으로 '천 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제별로 도서를 매년 100권씩 선정하여 추천 도서 목록을 제공하기도 한다.

도서관에서 기획한 프로그램과 추천 도서 목록 제공으로 사업의 만족도와 참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타 구민의 이용 신청도 쇄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천 권 읽기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이용자 간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과 정례화된 프로그램 운영,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어린이의 긍정적인 독서 성장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에 기인한 구전 마케팅이 큰 역할을 하였다.

지난 8월, 천 권을 달성한 참여자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독서 습관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시상식은 여느 어린이 행사와 달리 질서를 잘 지켜준 참여자 덕분에 차분한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시상식 외에도 천 권 달성자와 함께 달성자가 추천하는 도서를 소개하는 '명예의 전당'을 게시하여 아직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독려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천 권을 달성한 어린이가 추천한 도서가 사서나 선생님, 부모님이 추천한 도서보다 도서관 내 이용과 대출률이 높다.



명예의 전당



천 권 시상식



천 권 포토존

“이젠 유튜브는 거의 안 하고 게임 생각도 많이 안 나요, 이젠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요!”

- 2019년 천 권 달성자 차윤건(8세)

“책만 읽고 끝내서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과 함께 아이들의 독서 나이테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 개편 전,후 사업을 모두 참여한 김지후(7세)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을 통해 어린이 도서 매출도 상승했습니다.”

- 중랑구 어린이 서점

“취학 전 천 권 읽기를 끝내고 나니, 취학 후가 걱정이예요. 취학 아동을 위한 ‘포스트 천 권’도 만들어 주세요!”

- 2020년 천 권 참여자 학부모님의 의견

전국의 미취학 아동이 함께 책 읽기를 희망하며!

모든 독서 운동이 그렇듯 본 사업도 처음부터 순조롭진 않았다. 많은 민원이 있었고, 때론 아동 전문가에게 아동 학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순조롭지 못한 출발이었으나, 책 읽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책과 사람의 가교역할을 하는 사서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 참여자와의 소통,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등 모든 구성요소가 하나가 되어 중랑구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었다. 중랑구는 중랑구 미취학 아동의 70% 이상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2021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독서로 성장하는 중랑구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 ‘취학 전 천 권 읽기’ 독서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여자 후기

부모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취학 전 천 권 읽기'

올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다. 평소에는 자유롭게 놀면서 내가 '들려주는 독서'를 많이 했는데 '학습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책에 조금은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아이는 유아 시절의 독서 습관으로 책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한다. 육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책 읽어주기'였다. 유치원을 선택할 때도 도서관이 가까운 곳을 택하고, 유치원에서 하원하면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 주었다. 그러던 중 여섯 살 무렵 '취학 전 천 권 읽기'에 대한 도서관의 문구를 보게 되었다. "취학 전 천 권 읽기,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는 문구가 내 생각과도 같아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취학 전 천 권 읽기'에 도전했다. 혹시나 도장을 받기 위한 독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우려와는 달리 아이는 독서여권과 독서기록장에 읽은 책을 채워가는 재미를 느끼며 스스로 책을 찾아 읽었다. 유아 독서 습관을 길러 주기에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은 유익한 사업인 것 같다. 유아용 도서는 대부분 그림책이라서 부모와 아이 모두 부담 없이 독서를 즐길 수 있다. 때론 스토리만 읽어 주는 엄마와 달리 아이 스스로 그림을 보며 새로운 것을 발견해 말해 주기도 하고 엄마와는 다른 해석을 보여 주어서 깜짝 놀라게 할 때도 있었다. 무엇보다 무릎에 아이를 앉혀 놓고 같은 방향으로 책을 읽어 주는 것은 부모가 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추억인 것 같다.

- 2019년 천 권 달성자 장민준 엄마 김선영 <7월 중랑소식지 게재>

이지유(중랑숲어린이도서관장)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서관 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18년 차 사서이다. 중랑구의 다양한 생애를 대상으로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중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동화 활동가, 독서토론 리더를 양성하여 '책 읽는 중랑'을 활성화하는데 기반을 조성하였다. 현재는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을 진행하며, 중랑숲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서점에서 과학하기

이명현(과학책방 '갈다' 대표)

2020. 11.



몇 년 전부터 작은 책방과 동네 서점이 유행이다. 특정한 주제나 분야만 다루는 전문 서점도 많이 보인다. 제한적이거나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시도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도서정가제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서 이런 책방들이 조마조마해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해진 것도 이런 다양한 책방의 탄생을 도왔을 것이다. 삼청동에 있는 과학책방 '갈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생긴 교양과학책을 파는 서점이다. 작은 서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규모가 좀 있다. 동네 서점이라 하기에는, 삼청동에는 책방을 구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만한 동네 주민이 거의 없다. 과학책을 다루는 교양과학 전문 서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과학뿐 아니라 문화를 내세우고 있어서 '과학문화 책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 과학저술가 그리고 과학문화 활동을 하거나 이들과 함께 어울려 온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니, 작은 책방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색하다. 그래서

나는 과학콘텐츠 그룹 갈다의 첫 오프라인 프로젝트가 ‘과학책방 갈다’라고 말하고 다닌다. 그래서 과학책방 갈다는 통상적으로는 작은 책방이고 동네 서점이고 전문 서점이지만 좀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교양과학책을 파는 서점 본연의 업무보다 과학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하는 작업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학책방 갈다는 책을 파는 서점보다는 과학문화를 파는 문화공간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한다.

처음부터 교양과학책을 파는 책방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삼청동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먼저 생겼다. 제주도로 출장을 가던 중, 현재 책방이 있는 삼청동의 공간을 과학문화 활동을 위해 활용해 보면 어떨겠느냐는 말을 들었다. 동행하던 생명철학자 장대익 교수와 제주도 출장 내내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할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했었다.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서울로 돌아온 장 교수와 나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과학자와 과학문화 활동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의견을 다른 매체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어느 날인가 열 명쯤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나온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정하기로 했다. 한 명 두 명씩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이 책방 주인이었다는 말을 했다. 은퇴하면 책방에서 책도 읽고 책도 파는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다. 첫 사업은 교양과학책을 파는 서점을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누가 책방 주인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 대부분 현재 소속된 곳 있어서 당장 그 꿈을 실현하기는 어려웠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던 내가 대표를 맡기로 했다. 그 자리에서 ‘갈다’라는 책방 이름도 정했다. 갈릴레이와 다윈에서 한 자씩을 따와 ‘갈다’라는 이름을 지었다. ‘갈다’가 원래 바꾸다라는 의미도 있고 경작하다는 의미도 있어서 과학정신과도 나름 잘 어울린다는 장대익 교수의 제안이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거의 백 명 정도 참여한 문자 투표에서 ‘갈다’가 선정되었다. 과학책방 갈다는 그렇게 태어났다.

삼청동의 오래된 건물의 공사를 마치고 과학책방 갈다가 문을 연 것은 2018년 5월 말쯤이었다. 이제 2년하고 몇 달이 지났다. 처음부터 큰 방향성이나 로드맵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과학문화 활동을 하거나 이들과 어울리는 사람들(그리고 모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과학문화 활동도 하고 일반인들에게 과학 이야기도 들려주고 좋은 교양과학책도 알리자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과학책방 갈다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책방의 모습을 갖추는 데까지도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다. 일반인을 위한 교양과학책을 큐레이션해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뜻밖의 문제가 있었다. 과학책을 많이 읽는 마니아들에게 과학책방 갈다는 서점 자체로서의 매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과학책이 나오면 재빨리 인터넷 서점에서 미리 예약을 해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다. 새 책을 빨리 보고 싶은 것이었다. 정가제로 책을 팔고 배송도 상대적으로 느린 과학책방 갈다를 기다려 주기에는 책 자체에 대한 욕망이 더 큰 것 같았다. 과학책방 갈다에서 준비해서 판매하고 있는 예전에 나온 책들은 이미 그들의 서가에 꽂혀 있었다. 과학을 잘 모르거나 거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가독성이 높은 책들 위주로 큐레이션해 전시하고 판매를 하자니 초보자들이 과학의 문턱을 넘기에는 이런 책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과학은 여전히 큰 벽 뒤쪽에 위치한 무언가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교양과학 책방의 딜레마다.



이런 근원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오프라인 과학책방이 갖는 미덕이 있기에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과학책방 갈다에서는 책을 파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책을 중심으로 한 과학문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책방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시작한 것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책을 읽는 '칼 세이건 쌀롱'이었다. 제일 먼저 칼 세이건의 대표작이고 인지도가 높은 『코스모스』를 읽기 시작했다. 천문학자인 내가 책임기 가이드로 나섰다. 이 책을 한 번에 두 시간씩 여섯 번에 걸쳐 나눠서 읽는 독서 강좌다.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으며 책을 끝까지 읽어 보자는 취지였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칼 세이건의 책들을 읽는 작업은 계속 이어졌다. 이제 막 출간된 『브로카의 뇌』를 제외한 출간된 모든 책들을 다루었다. 『브로카의 뇌』 읽기는 올해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칼 세이건의 책을 여러 차례에 나눠서 전문가들과 함께 읽는 강좌를 확장해서 스티븐 호킹의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같은 과학의 고전들도 전문가의 가이드와 함께 읽기 강좌를 진행했다. 국내 저자가 쓴 책도 같은 방식으로 읽는 강좌를 운영했다.

가이드와 함께 한 권의 책을 여러 차례 나눠서 자세히 읽는 강좌는 과학책방 갈다의 책임기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칼 세이건 쌀롱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사람이 생겼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갈다에 모여서 과학책을 읽는 자생적인 과학책 읽기 모임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갈다식 책임기 강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싶다는 요청도 생겼다. 자연스럽게 과학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강좌도 마련되었다. 교사를 위한 갈다식 독서 지도법 강좌도 운영했다. 과학책 읽기 진행을 위한 모더레이터를 양성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예비 강좌가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운영하던 과학책 읽기 강좌를, 체계를 세워 좀 더 규격화된 '갈다 독서 아카데미'로 만들려 한다. 과학책을 중심으로 과학을 일반인들에게 전하는 작업이 과학책방 갈다의 핵심적인 활동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서점에서 과학이 어떻게 일반인들과 효과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곳에서 과학 강연이 이어졌고 TV 같은 고전적인 매체나 유튜브 같은 새로운 매체에서 과학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학책방 같다는 이런 매체환경 속에서 책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매체가 일반인들에게 과학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과학책방 같다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같다가 주목하는 신간을 매달 발표하는 것이다. 다섯 명의 신간 선정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8~9권 정도의 신간을 뽑는다. 간단한 평을 붙이고 몇 가지 구분을 해 별점도 단다. 과학책을 고르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인 셈이다. 좋은 교양과학책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책들 중에서 함량 미달이거나 유해한 책을 걸러내는 것도 같다가 하려고 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해서 쌓인 신간 목록이 이제 제법 된다. 최근에 나온 책들 중 가독성이 높고 배울 것이 있는 책을 찾는다면 이 책들부터 읽기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같다의 북큐레이션 위원회에서 선정한 책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서비스도 있다. 아주 기초적인 과학책을 읽고 그 책을 쓴 저자나 그 분야의 전문가 강의를 같이 듣는, 책과 강의 구독 서비스이다. 과학의 문턱을 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시도다. 같다가 선정하는 책을 정기적으로 배송하고 같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구독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두, 잘 큐레이션된 책읽기 프로그램이다. 일반인들이 과학을 접하는 좋은 방식의 하나로 정착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다. 책과 보충 강의를 통한 과학으로의 여행을 일반인들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더디지만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과학책을 고르고 평하고 모임을 갖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큰 보람이 됐다. 책방에서 과학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다.

과학책방 같다가 책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북토크다. 신간이 나오면 출판사와 협력해서든, 같다가 독자적으로 기획해서든 북토크를 진행한다. 주로 국내 저자가 낸 신간을 골라 저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번역된 책을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설하는 북토크를 하기도 한다.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북토크와 별 다를 것 없는 프로그램이다. 과학책 출간 규모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이름이 좀 알려진 저자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북토크를 할 기회가 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책방 같다에서는 과학책을 처음 출간한 초보 저자들의 북토크를 적극적으로 열고 있다. 같다에서 북토크가 열리고 나면 다른 곳에서 그 저자에 대한 문의를 종종 해 오곤 한다. 인연이 잘 이어져서 여러 곳에서 북토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교양과학책 전문 서점이라고 하는 제약이 오히려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최적의 공간이 된 셈이다.

다른 모든 작은 서점, 동네 서점, 전문 서점과 마찬가지로 과학책방 같다도 책만 파는 곳은 아니다. 과학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책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과학문화를 같이 호흡하고 향유하는 공간인 것이다. 거창한 목적을 갖고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과학책방 같다는 책을 통해 과학을 문화로 만들어 가는 큰 궤도에 올라탄 것 같다. 그 궤도로 일반인들을 안내하고 그 궤도를 같이 돌면서 과학책을 읽고 과학을 배우고 이 시대를 향유하는 과학문화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이 문화로 스며들어 그 경계가 없어지는 날까지 과학책방 같다는 책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과학문화 열차를 타고 그 궤도를 계속 돌 것이다. 과학이 문화가 되는 그날까지!



이명현(과학책방 '갈다' 대표)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교 천문학 박사, 현재 과학책방 갈다 대표, 현재 METI International 자문위원
저서: 『이명현의 별 헤는 밤』 등 다수

성교육 어린이책 불온시비는 시대의 퇴행

김대유(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2020. 11.

반복된 불온서적 시비

성교육에 대한 불온서적 시비는 극우성향 기독교 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단골 메뉴다. 어린이·청소년 성교육이 선정성을 조장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지난 8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교자유통일당을 지지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분학연(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 반동성애기독교시민단체, 안티페미협회, 바성연(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등은 공동조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선정하 어린이책 일곱 종에 대해 ‘성관계, 동성애 묘사, 선정성 등’을 문제 삼아 정부에 폐지를 청원했다. 8월에 시작된 청원이 9월 2일에 7만 2천 명에 이르렀지만 통상 청와대 게시판의 성격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수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독교 계열의 <크리스천 투데이>와 <펜앤드마이크 TV>가 “여가부, 동성애 주장하고 성관계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동화책 대거 초등학교에 비치해 물의”(8월 12일)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8월 25일 국회 교육상임위의 김병욱(국민의 힘,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기사를 토대로 한 듯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등의 nadaum 어린이책에 대해 “조기성애화 우려가 담긴 민망한 그림이 있다”며 선정성 시비를 제기하였고, 여가부는 26일 하루 만에 nadaum 책이 배포된 초등학교 다섯 곳에서 관련 서적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수정당과 기독교 세력의 연합전선이 아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셈이다.

청와대의 간곡한 압력이 있었는지 교육부와 여가부는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꼬리를 너무 빨리 내렸다. 문제로 지적된 책을 회수하겠다고 백기 항복을 했다. 정부의 태도에 대해 언론과 현장 분위기는 비판적이었다. 정부의 무책임한 관련 책 회수 방침은 지난 세월, 의식 있는 여성운동가 및 여성단체 등이 눈물겹게 쌓아 온 어린이·청소년 성교육의 공든 탑을 무너트렸다. 또한 정부는 그로 인한 피해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극우종교단체는 어린이 성교육책에 대해 “아빠와 엄마의 성행위 장면을 보보, 고추, 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선정성을 불러일으키고,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원색적인 비난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일부 보수종교단체는 지난 10여 년간 보건교사가 국가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집필하고 정부가 승인한 보건교과서의 성교육을 후퇴시킨 전력이 있다. “교과서에 그려진 성기 삽화를 삭제하라”, “콘돔과 피임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엄마, 아빠가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이 선정적이다”, “아예 성교육 단원을 삭제하라”며 출판사와 저자에게 압력을 가했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저자의 요청을 외면하고 아예 보건교과서 불매운동까지 전개했다. 충남의 한 지역에서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과서를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유포하고 수시로 출판사를 방문하여 성교육을 약화, 폐지하라고 협박하는 일도 발생했다.

출판사와 저자의 피해 구제 호소에 교육청은 “학교와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였다. 국회의원 문제제기 하루 만에 nadaum 어린이책을 회수하겠다는 중앙정부 입장에 비추어 보면 그저 방관하는 교육청의 처세가 그래도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결국 오십보백보다. 이러한 여가부와 교육부의 방관적 태도는 국민을 버리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보수단체의 마녀사냥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어린이·청소년의 성교육이 나아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선정성을 둘러싼 진위공방

2019년 nadaum 어린이책 추천도서는 어린이가 신체의 성장과 변화를 바라보는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 구성원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아동청소년 문학평론가, 초등교사, 교수, 작가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nadaum 어린이책 토론회를 담당했던 씽투제작소 남윤정 대표는 “성교육 도서 중의 경우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아니라 교사 또는 사서 지도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9년 다섯 개 초등학교의 경우 양성평등과 성교육 등 nadaum 어린이책 담당 교사 지도하에 활용하도록 협의하고 지원되었다”며 합리적인 선정과 지도, 관리체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극우단체의 비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는 부부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였고,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에는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고 체외수정 시술까지 소개하였으며, 『걸스토크』에서는 여성 성기, 콘돔 사용을 표현했고,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핑이』는 이종(異種) 간 결합 등 성소수자를 미화하며,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는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입(흰둥가리, 도화돔 등 성별 구분이 바뀌는 사례를 지적)하고,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묘사하는 듯한 그림이 있으며, 『우리가족 엄마, 아빠, 딸 인권선언』에서도 동성애를 묘사하는 그림이 있다는 등 부작용 사례를 지적하였다. 비난의 초점은 대체로 그림이나 삽화, 비유가 선정성과 동성애 미화를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동물 비유를 이종 간 교배로 몰아갈 정도로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나 성인권 교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nadaum 어린이책 선정기준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전문가 연구 과정을 거쳤고, 선행연구와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책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자기 긍정’(주체성, 몸의 이해, 일의 세계), ‘다양성’(가족, 사회적 약자), ‘공존’(사회적 안전과 연대)의 세 가지 가치체계를

확정하여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심사 기간도 4월에서 6월까지 충분히 두었고, 선정위원과 출판사별로 추천을 받고,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출간한 1,200여 종의 작품을 폭넓게 사전검토하고, 도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34종을 2019년 7월 3일에 발표하였다. 여기부는 2020년 이 사업으로 열 개 초등학교와 열두 개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기로 예정한 바 있다. 여기부는 극우종교단체 등이 문제 삼았던 일곱 종의 책에 대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는 1971년 덴마크에서 출간되어 유아성교육자료로 쓰였으며, 우리나라 초등 사회교과모임의 공동대표가 추천할 정도로 유익한 책이고,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는 CBCA(오스트레일리아 어린이 도서위원회) 올해의 어린이책 최종후보에 오른 어린이 성교육서이며, 『걸 스토크』는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추천도서로 주요 구매자인 40대 여성 양육자 리뷰도 긍정적이고,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핑이』는 다문화 문제를 비유적 상상을 통해 말하는 그림책이며,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는 일본 유명작가 나카야마 치나츠의 작품으로 문화상을 받은 책이고,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의 저자 페르닐라 스틸텔트는 ‘처음 철학그림책’으로 세계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동문학상인 스웨덴 정부 이스트린드 린드그텐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우리가족 엄마, 아빠, 딸 인권선언』은 국제 엠네스티 프랑수 한국지부의 추천도서다. 즉 관련 서적은 모두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전문가가 추천한 아동 성교육책에 속한다. 그런데 왜 이리 난리가 났을까? 난리의 배경에 정치적 목적과 특수한 이익 추구의 욕망이 내포되어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불온서적 시비는 마녀사냥

나다움 어린이책에 대해 불온서적 시비를 불러일으킨 극우종교단체 등은 성교육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성교육을 강조하는, 즉 성교육 자체에 대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무슨 말일까? 이들 중 주요 단체는 2015년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황우여 장관)가 만든 ‘국가성교육표준안’ 자문그룹에 속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보수적인 국가성교육표준안을 만들었고 순결교육에 준하는 내용의 학생 성교육을 강조하였다.

성교육표준안은 종교편향적이고 가부장적인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빠와 엄마의 성고정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오히려 성역할을 잘못 인식시키고, ‘성폭행의 개념을 남성 성기 중심으로 해석’하여 성폭력법의 범위를 축소했으며, ‘성폭력의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성과 관련된 거절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 때 성폭력, 임신, 성병 등 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하는 경향성을 노출시키고, ‘청소년 성행위 원천 불인정’ 즉 결혼만을 성행위 출구로 단정하여 종교적 편향성 드러내고 있다. 성행위는 결혼할 때까지 자제하라는 문구가 그것이다. ‘친구들끼리 여행가지 않는다’는 상식 이하의 주장도 있다, ‘임신과 태아 건강을 여자에게만 책임지게 하는 듯’한 내용도 있다. 건강하고 총명한 아기를 원한다면 자궁 관리를 하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여성은 특정 남성에게만 성적 반응, 남자는 다수의 여성에게 반응’한다고 하여 오히려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뇌 구조가 다르다’고 하여 생물학적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남성우월주의적인 남성, 술을 마신 후 행동이 형편없어지는 남성과 데이트 하지 말라’고 규정하여 남성관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내용에 동성애, 자위 등 기존 보건교과서 등에 수록된 주제조차 누락시키거나 가르치지 말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회 토론회에서 박혜자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권 교육부에서 만든 성교육표준안의 획일적·경직적 사고는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과 더불어 결국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우 보수종교단체가 지난 10여 년간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라인을 따르는 정규 보건교과서의 성 단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단체의 청소년 성교육을 부정해온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존재기반을 공고히 하고 순결교육에 준하는 보수적인 학교성교육을 주도하면서 물밑으로는 여성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성교육 등을 가져가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 승리로 인해 어린이·청소년 성교육의 앞날은 갈수록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성교육은 특수한 이익 도모나 보수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변질될 성격이 아니다. 몇 가지 표현을 트집 잡아 선정성으로 억울하게 매도된 불온서적 시비는 지금이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학교에 배포된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도서 회수 조치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여가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관련 서적을 다시 학교에 배포하고 사업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에 호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은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학교에서 성교육을 학습하고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은 관련법에 의해 성교육을 받는다. 성교육은 무엇보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기반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대유(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교육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2015~2019),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UN 아동권리협약 옴부즈퍼슨,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등 역임 / 논문으로 「국가성교육표준안의 쟁점과 과제」, 「학생 성교육의 법률적 고찰」 등이 있다.

슬기로운 출판인 생활

- 출판계, 번아웃에 대처하는 방법

김선영(길벗 출판사 마케팅팀 대리)

2020. 11.

번아웃 증후군, 혹시 나도?

“출근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일에 대한 의욕이 전혀 생기질 않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점점 예민해지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버거워요.”



사진 출처: Pixabay

혹시 이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면?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을 의심해 봐야 한다. 번아웃 증후군(이하 '번아웃')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다.

번아웃 증후군 체크리스트

* 합한 점수가 65점 이상이면 번아웃 증후군이 의심된다. 번아웃 증상을 느끼고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구분	질문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쉽게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2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쳐 있다.	1	2	3	4	5
3	아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1	2	3	4	5
4	현재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	1	2	3	4	5
5	나의 직무 기여도에 대해 냉소적이다.	1	2	3	4	5
6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1	2	3	4	5
7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1	2	3	4	5
8	최근 짜증, 불만이 많아지고 여유가 없다.	1	2	3	4	5
9	이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일에도 화를 참을 수 없다.	1	2	3	4	5
10	주변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잦다.	1	2	3	4	5
11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1	2	3	4	5
12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	1	2	3	4	5
13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이 늘었다.	1	2	3	4	5
14	일하는 것에 심적 부담과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	1	2	3	4	5
15	모든 일에 대체로 의욕이 없다.	1	2	3	4	5
16	두드러지게 유머감이 줄었다.	1	2	3	4	5
17	성욕이 감소했다.	1	2	3	4	5
18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힘들게 느껴진다.	1	2	3	4	5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지친 뇌, 번아웃에서 탈출하라 (중년 건강 백과, 2016. 5. 26., 오한진)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조사 결과 직장인 95%가 번아웃 증상을 겪었다고 응답했다(출처: 2019. 잡코리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반복되는 업무에서 오는 성취감 결여 등이 그 이유다.

출판계 “난 이럴 때 번아웃을 겪는 것 같다”

코로나19와 길어지는 경제 불황으로 외부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더욱 많은 사람이 번아웃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인지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인문 심리서나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서 등의 출간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정작 그 책을 만드는 출판인의 건강은 어떨까? 동료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Q. 최근 번아웃을 겪은 적이 있나?

* 해당 인터뷰는 5개 출판사 현직자(편집자, 마케터, 영업자,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편집자 Y -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다고 느껴질 때”

편집은 계속 ‘아웃풋’을 만들어 내는 작업인데, 아웃풋의 양이 인풋 대비해서 많다고 느껴지면 번아웃을 겪게 되는 것 같다. 특히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면 소진 시켰던 것들을 다시 채울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언제까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커지게 된다. 개인 시간을 줄여서 뭐라도 해야 할 거 같은데, 그러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오고 지치게 된다.

편집자 S - “매출 중심 도서 기획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육체 건강 저하로 이어지기 시작한 시점인 것 같다. 불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돈이 되는’ 도서의 기획·개발에 대한 관리자의 압박이 알게 모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이슈로 출판계의 콘텐츠 스킬링 현상(‘재테크’와 ‘부’의 키워드가 베스트셀러 시장 지배)이 더욱 극명해지면서 ‘콘텐츠 기획’에 대한 고민과 ‘책의 본질’에 대한 회의가 더욱 깊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집-회사를 반복하는 일상이 장기화되다 보니, 활력이 떨어지고 무력감이 오는 것을 느낀다.

디자이너 L - “일정이 매번 촉박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없을 때”

카드 뉴스나 배너 등 웹에 올라가는 홍보물 위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 촉박한 일정에 맞춰 빨리빨리 하느라 마음이 늘 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결과물을 내보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식의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성취감이 떨어지더라. 그때 무기력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마케터 H - “불합리한 근로 환경을 마주할 때”

솔직하게 답변하자면 지금도 번아웃을 겪고 있다. 출판 노동자로서 일에 대한 번아웃 보다는 출판 시장 자체에 대한 슬럼프에 가깝다. 출판의 미래 비전이나, 근로자를 대하는 사업주의 태도 등에서 자주 번아웃을 경험한다. 출판업을 애정한다는 이유로 공

정적인 근로 환경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껴진다.

영업자 K - “너무 많은 일을 혼자서 해야 할 때”

너무 많은 일을 혼자 할 때. 좋은 이슈가 생겨(유시민 저자가 책을 소개하거나, 10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에서 도서가 급소개 됐다거나) **갑작스럽게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 문제가 생긴다(뇌 정지).

마케터 P - “보여주기식 일을 해야 할 때”

주로 마케팅해야 하는 **책의 콘텐츠에 반감을 느끼거나 사내 정치 문제로 보여주기식 일을 해야 할 때**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성취욕이 사라진다.

출판인의 번아웃 원인도 일반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도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컸다. 다만, 일부는 직무적 특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편집자 Y처럼 매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그 예다.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처럼 출판계를 포함하여, 통계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직무별, 산업별 원인이 있을 것이다.

번아웃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

전문가들은 번아웃이 무기력증, 건망증, 불면증 등의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극심한 피로감, 어깨결림, 고혈압, 위장장애 그리고 심지어는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무시무시한 신체적 질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신적 문제가 결국 신체적 질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단순히 ‘피곤한 거겠지...’라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번아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또다시 동료들에게 물었다.

Q. 번아웃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은?

* 해당 인터뷰는 5개 출판사 현직자(편집자, 마케터, 영업자,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편집자 S - “일과 삶의 분리”

일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야를 원데이 클래스 수업으로 듣는다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인 장르의 영화나 소설을 읽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분전환을 시도한다**(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는 주로 여행을 갔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일상을 벗어나는 건 어려워졌으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직장을 옮겼던 것 같다.

마케터 P -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원인을 찾아서 없애버리거나 그럴 수 없다면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 하나씩은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외에 **평소에는 취미 생활을 통해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영업자 K - “선배에게 조언을 구한다”

업계 특성상 비슷한 일을 먼저 겪은 선배가 많다. 그들에게 연락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찾는 데 도움을 얻는다.** 지금 방향이 맞는지, 빠뜨린 게 무엇인지 조언을 구한다. 그렇게 상황을 하나씩 처리해 가면 점점 나아짐을 느낀다!

디자이너 L - “가족과 대화한다”

원래 이렇게 우울한 일이 있으면 깊게 빠지는 편인데, **남편과 대화를 통해서 많이 나아진 것 같다.** 남편이 단순하다. 생각을 잘 끊어낸다. 긍정적인 기운에 용화가 되는 것 같다. 쌓아두지 않고 **가족에게는 친구에게는 털어놓고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편집자 Y - “일단 버틴다”

일단은 버티는 게 중요하다. 못 해 먹겠다고 생각해서 사표를 던지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있는 것 같다.** 그 시기에는 그냥 너무 힘들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나고 나서야 ‘아, 그때 버텨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일이 끝나면 취미활동을 통해 의식적으로 일과 삶을 분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조언을 얻고, 또 일단 무작정 버티기도 했다.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을 했다. 전문가들 또한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기, 하루 10분 산책, 일과 삶의 균형 맞추기 등 평소 지친 뇌를 재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과도한 업무량, 소모적인 업무 등 조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슈들도 번아웃의 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런 부분들까지 개인의 탓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직원의 번아웃 예방을 위해 출판업계를 포함하여, 모든 업계가 조직 차원에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조직원을 배려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충 살자! 편집자 H처럼 - 번아웃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나 자신’

‘최근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유일한 사람이 있다. 편집경력 14년 차 부장님이다.

편집자 H -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

신입 때는 미숙하니까 번아웃이나 스트레스를 조절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퇴사를 했다(웃음). 하지만 최근 10년간은 번아웃을 겪은 적이 없다. 번아웃이 올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관리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과 나를 어느 정도 분리해야 한다. 나도 **이 일을 무척 사랑하지만 일과 자신을 너무 동일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일로써 확인하려 하다 보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게 된다. **일은 어디까지나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일도 더 잘 할 수 있다.** 결국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번아웃을 극복하는 데 정해진 정답은 없다. 시도해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일도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자. 대충 살자! 편집자 H처럼. 자신을 갉아먹는 일에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김선영(길벗 출판사 마케팅팀 대리)

5년 차 마케터입니다. 책보다 재밌는 게 넘쳐나는 세상에서 출판사 마케터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합니다.

종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성기태(한국제지연합회 총무기획팀 팀장)

2020. 11.

‘종이는 나무를 베어서 만들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한다?’

우리 사회 저변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는 오해 중 하나가 종이가 산림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해인 이유는 종이만큼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이가 나무를 베어서 만들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이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힘을 얻고 있다. 추측건대,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 배경이 되어 인식이 굳어진 것 같다. 우리나라 산림자원은 일제강점기(1910~1945)와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화 시기를 거쳐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던 목재 비중이 80%에 이르렀던 1960년대 초중반까지 매우 심각했다. 이미 8·15 광복 직후의 UN 보고서에는 한국의 산림이 복구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고 하니,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산림녹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 산림은 채 60년도 안 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오늘날과 같이 복원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대부분 세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나무를 베는 것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교육을 수도 없이 받았고, 또한 강력한 행정력이 투입된 산림녹화 캠페인을 보면서 자랐다.

산림녹화 교육과 정책이 주는 강한 톤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관계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 북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종이가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 종이를 만드는 일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종이 원료가 되는 나무칩이나 펄프는 자연림(또는 천연림)이 아닌, 인공조림을 통해 생산한다. 즉, 채집 목재가 아닌 재배목재인 것이다. 농부가 논이나 밭에서 작물은 키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세계자연기금(WWF) 「Living Forests Report」에는 산림파괴와 환경오염의 가장 큰 적은 농업과 불법 벌목, 광업 그리고 대형 화재 순으로 되어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AOSTAT 2015」에도 세계 벌목의

50%는 에너지, 28%는 건설용으로 사용하며, 종이 생산에 사용하는 나무는 13%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다.

FAO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산림은 2010~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470만ha 감소했다. 산림 감소의 속도가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와 남미의 열대지역이었으며, 그 원인은 농지로의 전용, 위법 벌채, 비전통적인 화전 농업, 연료용 목재의 과잉 채취, 삼림화재 등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제지도 여기에 포함) 산림 면적은 1990년 이후 일정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종이의 생산·소비가 세계 산림 감소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밖에 잘 관리된 조림지는 다양한 임산제품을 공급하는 데 유용하며, 천연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고서(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와 조림지는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보고(WWF 「Living Forest Report」ch4)도 있다. 유독, 우리나라 일부 언론과 환경론자들이 제지산업이 불법 벌목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 종이는 재활용이 된다!

종이는 한 번 쓰고 휴지통에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종이는 몇 번이고 재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자원이 부족한 한계를 종이 재활용 기술로 극복하고 세계 7위의 종이 생산국이 되었다. 종이 재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88.3%였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정이나 회사에서 분리 배출하는 폐지 대부분이 재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이는 모두 1,150만 톤이었으며, 이 중 원료의 78%는 폐지를 재활용한 것이었고, 나머지 22%에 인공조림지에서 생산된 나무칩이나 수입한 펄프, 일부 국내 조림지에서 발생하는 잔여물과 간벌재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잔여물이나 간벌재를 종이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마 대부분 연료로 태우거나 버렸을 것이다. ‘좋은 나무를 베어 종이를 만들고 있다’와 같은 인식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무칩이나 펄프 또한 산림인증(FSC 등)을 받은 인공조림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시장 수출은 물론이고, 국내시장에서도 외면 받는다. 종이가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조림단계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지와 종이제품은 재활용 자원과 인공조림에서 나오는 펄프로 생산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무분별한 벌목을 통해 생산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다) 종이가 친환경적인 또 다른 이유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이고, 이를 해결하는 데에 제지업계는 가장 앞장서고 있다. 전 세계 인공조림의 상당 부분이 제지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참고로 나무의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는 펄프용재로서의 적정 수령일 때가 가장 활발하며 그 후 서서히 둔화된다.

오늘날 제지산업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펄프와 종이 생산과 병행한 바이오매

스의 에너지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무는 햇빛과 물만 있으면 성장하는 재생산 가능한 무한 자원이다. 도시개발·도로건설·광물채광·원유채굴 등과 같이 지구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도 없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 광합성에 대하여 배웠던 대로, 종이의 원료인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탄소가 고정된 상태에서 종이가 된다. 목재섬유 이외에 종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종이를 소각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목재 성장 과정에 흡수·고정된 이산화탄소가 되어 새로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Carbon Neutral(탄소중립)이라는 것으로, 화석 원료 소재 물질에는 없는 종이의 우수한 특성이다.

종이책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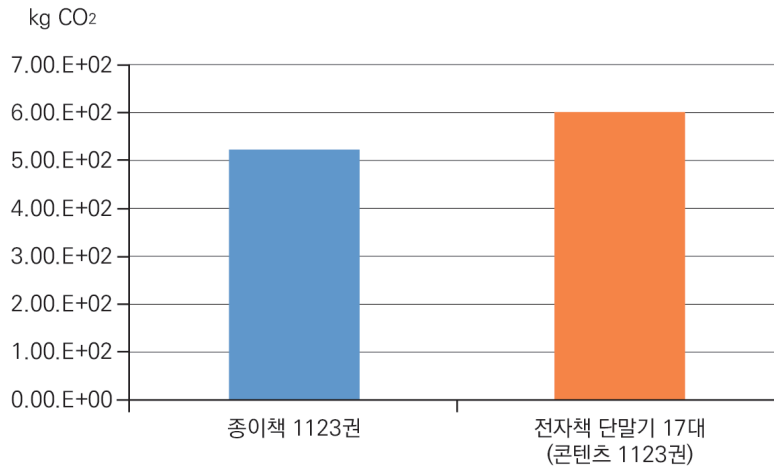
교육의 본질적 가치 중 하나는 학습을 통한 사회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교육은 매우 좋은 부교재가 될 수 있지만, 종이 교과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사회화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완성된다. 건강한 사회화 과정은 성장기를 거치면서 책을 읽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타인과의 견해를 좁히고, 접점을 찾아가는 토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교육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디지털 교육을 통해 사회화를 할 경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데 한계를 보인다. 디지털 기기 과다사용자군은 대체로 과소사용자군에 비해 신체·건강·운동·정서·감정·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에서 일정 부분 문제를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드러난 연구결과도 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의 급속한 확산이 문명의 흐름과 인간 생육환경 및 성장에 있어 필요상의 부정함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제지연합회는 종이책과 전자책의 환경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원료단계에서부터 폐기 및 재활용단계에 이르기까지 LCCO₂(Life Cycle CO₂, 전 생애 주기 환경부하[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종이책 한 권에 대한 LCCO₂ 수행 결과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원료단계에서 1.36E+00kg, 제품생산단계에서 4.71E-02kg, 제품유통단계에서 1.69E-02kg 순으로 CO₂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은 공유를 통하여 한 권의 책을 다수의 인원이 읽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위 분석을 종이책의 독서행태, 즉 공공기관 및 가족 간 서적 공유를 고려하여 적용한 결과, 공유 인원수만큼 종이책을 생산했을 때 발생하는 CO₂ 배출량보다, 한 권의 책을 공공기관과 가족 안에서 공유했을 때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이 각각 27.4%, 62.6% 정도 저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적 공유를 적용한 결과, 종합 LCCO₂ 결과는 4.65E-01kg로 나타나 총 49.6%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자책 단말기에 대한 LCCO₂ 수행 결과는 제품생산단계에서 2.02E+00kg, 원료단계에서 1.60E+00kg, 제품유통단계에서 2.82E-02kg 순으로 CO₂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단말기는 전자책 콘텐츠를 다운로드해야 독서가 가능하므로 전자책 단말기 사용단계에서 전자책 콘텐츠 운영 및 관리를 통한 환경영향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종이책 수명 50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사용되는 전자책 1,123권(단말기 포함)과 동일한 양의 종이책 1,123권에 의해 발생하는 전체 CO₂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전자책이 6.02E+02kg으로 종이책의 5.23E+02 kg에 비해 약 15%정도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책과 종이책의 LCCO2 종합 비교 결과



이 연구는 종이책과 전자책의 환경영향을 비교함에 있어서, 종이책은 인쇄용지 생산업체를 통해 원료 및 부원료 등 상세한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반면에, 전자책 단말기는 제조업체가 투입하는 생산자료 수집이 어려워 관련 연구 및 문헌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여 LCA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50년의 장기 해석에 있어 미래의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기술 기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분명한 한계였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종이책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잘못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책 산업과 마찬가지로, 제지업계도 친환경 제품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2천년대 들어 ‘종이책이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2010년 전후로 전자책 출판이 본격화되었다. 전자책 유통업체가 구독형 서비스를 잇달아 론칭하면서 “머지않아 출판업계의 흐름이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견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전자책 시장은 여전히 협소하다. 전자책 시장규모는 약 3천억 원으로 전체 출판시장(7조 8,037억 원)의 3.5%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자책 산업의 매출이 꾸준히 성장했다고 하지만 종이책의 아성엔 미치지 못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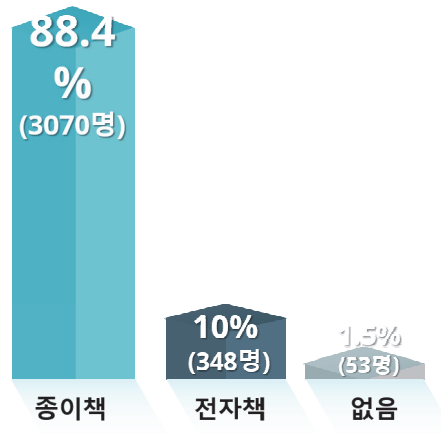
장점을 두루 갖춘 전자책이 종이책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업계 관계자는 전통 미디어인 종이책이 살아남고 있는 이유로 ‘감성’을 꼽았다.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종이책을 접하면서 종이 특유의 냄새, 재질 등을 즐기고 소비한다”며 “이는 전자책이 갖지 못한 종이책만의 분명한 강점”이라고 말했다. ‘종이책을 선호하는 이유’로 ‘소장하는 즐거움이 있어서’가 31.0%에 달한 설문조사(나우앤서베이, 2월 기준)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종이 매체 선호도 조사

끝으로, 한국제지연합회가 제4회 종이의 날을 맞아 <소비자의 종이 매체 호감도에 관한 실태 조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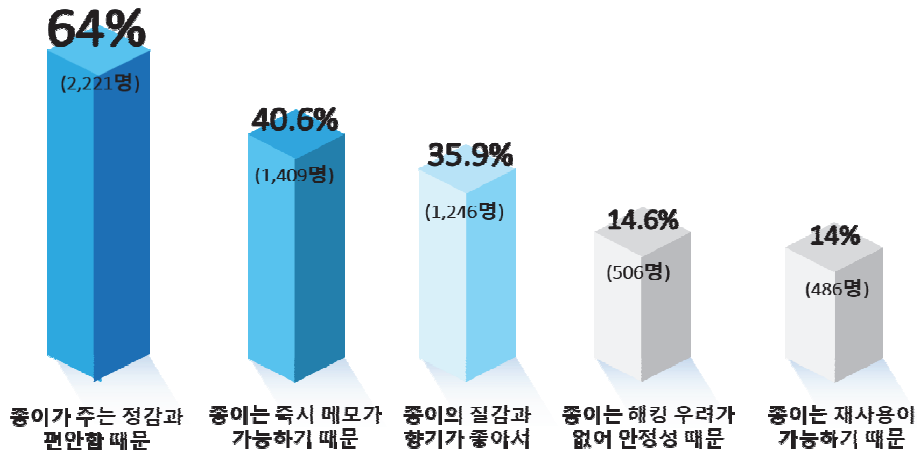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총 3,471명이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자.

종이책과 전자책 선호도 조사



종이책 선호 이유

*복수응답



종이책과 전자책 선호도 조사에서는 종이책 선호 응답자 3,070명(88.4%), 전자책 선호 응답자 348명(10%)으로, 종이책 선호도가 전자책 선호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종이 매체가 디지털 매체보다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종이가 주는 정감과 편안함 때문'이라는 응답이 2,221명(64%)인 것으로 나타났고, '종이는 즉시 메모가 가능하기 때문' 1,409명(40.6%), '종이의 질감과 향기가 좋아서' 1,246명(35.9%), '종이는 해킹 우려가 없어 안정성 때문' 506명(14.6%)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미래에 종이책이 가장 많이 활용될 분야에 대해 복수로 질문한 결과에서는 친환경(생분해성) 포장지가 1위로 나타났다. 이는 종이책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플라스틱 환경오염에 대한 대체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기태(한국제지연합회 총무기획팀 팀장)

우리는 매일 종이를 만납니다. 아침식탁에서, 일터에서, 커피숍에서, 퇴근 후 찾은 선술집에서조차 만납니다. 책으로, 티슈로, 보고서로, 우편물로, 택배상자로 만나고, 영수증으로, 심지어 술병에서조차 만납니다. 그리고 몇몇 종이를 더 만나고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종이는 처음 발명된 이래, 오늘날까지 2천년 동안 늘 인류의 삶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제, 기록과 포장의 시간을 지나, 플라스틱을 대체할 것이며 미래의 첨단소재가 되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인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에세이]

책은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것이지만

- 코로나 시대의 독서

박사(북 칼럼니스트)

2020. 11.

2013년부터 책을 싸 짊어지고 다니며 이곳저곳에서 책을 낭독했다. [박사의 독야청청-책듣는밤]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럴듯한 행사였으나 짐은 단출하고 자리를 만드는 이나 읽는 이나 듣는 이나 마음 가벼운, 부담 없는 시간이었다. 그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의 내 마음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책은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 그렇다. 책을 읽으려면 책만 있으면 된다. 성능이 좋은 기계나, 암호가 필요한 인터넷 선이나, 커다란 스크린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산꼭대기, 바닷가, 논밭 한가운데, 길 한복판. 그곳이 어디여도 상관없다. 누워서 봐도 되고 서서 봐도 된다. 내가 책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책듣는밤]은 다양한 곳에서 열렸다. 강진의 야시장에서는 천막 아래 옹기종기 모아 놓은 의자에 앉은 사람들이 내 낭독에 귀 기울였다. 청담동의 미장원에서는 거울과 미장원 의자를 양쪽으로 한껏 밀어 놓고 한가운데 앉은 이들을 향해 읽었다. 카페와 서점은 자주 문을 열고 의자를 놓아줬다. 술집에서는 술을 마시며 읽었다. 갤러리에서, 을지로의 낡은 건물 옥상에서, 오래된 역사에서, 작은 정원에서, 옛 동네의 한옥에서, 지하의 농구코트에서, 없어질 뻔했던 공원에서, 천년고찰 절에서... 사람들은 주로 혼자 와서 내 낭독에 귀 기울이고, 그중 마음을 건드렸던 책 제목을 적어갔다. 조용하고 충만한 날들이었다.

날들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됐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3년 말에 첫 회를 시작하여 79회에 이르기까지 규칙적인 듯 불규칙적인 듯 해왔던 작지만 나름대로 연륜 있는 행사였는데, 조용히 동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전염병은 사람들을 강제로 흐트러뜨리고, 각자 자신의 안전한 공간에 칩거하기를 강요했다. 나는 청중을 잃었고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 [책듣는밤]뿐이라. 온갖 낭독행사와 작가와의 대화, 북콘서트가 일시에 멈췄다. 책이 출간되면 당연한 듯 따라오던 행사들이다. 책을 알리고 독자를 불러 모으는 데 가장 유용했던 행사다. 그 모든 행사들이 멈추면서 출판계도 일시 정지되는 듯 보였다. 더불어 각종 독서 모임도 휴업에

들어갔다.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책 읽는 이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졌다.

허전했지만 “책은 언제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칩거 생활은 장점도 있다. 칩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안 읽던 사람들조차 책을 들춰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달고나커피에게까지 밀리는 모양새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책을 찾는 양상은 뚜렷해졌다. 모여서 읽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흩어져서 읽었다. 사실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다. 원래 독서는 혼자서 하는 행위니까,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독서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책은 조용히 팔려 나갔다. 등교하지 못하게 된 아이를 위한 학습서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궁금한 사람을 위한 의학과 과학 관련 책이, 미래가 막막해진 사람에게는 SF 소설이…. 책에서 답을 구해 온 오래된 유전자는 사라지지 않았나 보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

문제는 나다. 밖에서 낭독할 수 없게 되니 몸이 근질근질해서 유튜브를 만들어보았다. [랜선 책듣는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짧은 글을 하나씩 낭독해서 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유튜브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것저것 파도를 타고 찾아가 보게 되었는데… 아니 이렇게 재미있고 유용한 세계가 있었다니! 이전에는 “책에서 몇 줄만 읽으면 알 수 있는 걸 왜 영상으로 오 분씩 보고 있어야 해? 너무 시간 낭비 아니야?” 했던 생각이 “아니 유튜브가 다 설명해 주는데 뭐하러 책을 봐?”로 바뀌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구독목록이 차곡차곡 쌓이고 생활 습관이 조금씩 변했다. 음악 소리도, TV 소리도 없이 오로지 책 읽는 공간이었던 내 방에 소음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랜 습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무엇에 관심을 갖던 그것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 것이 내 첫 번째 순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빼앗아 간 것은 각종 낭독행사만이 아니었다.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 온라인으로는 전자책을 포함하여 책을 찾는 이가 늘었지만, 오프라인으로 책을 만날 수 있는 서점과 도서관은 코로나19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도서관이 문을 닫은 것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치명적인 일이었다. 내가 도서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아프게 알게 되었다. 나쁜이겠는가. 보이지는 않지만, 공공 서비스망이 우리 생활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 삶의 수준을 얼마나 높여 주었는지 여실히 알게 된 셈이다.

내 독서 생활은 위기에 빠졌다. 유튜브를 기웃거리면서 잃게 된 것은 ‘집중력’이다. 처음에는 좀 짧다 싶었던 10분 남짓의 동영상이 이제는 너무 길게 느껴진다. 책을 잡았다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리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다. 여전히 책을 자주 잡고 활자를 들여다보려 하고는 있지만 몰입하기는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책듣는밤]에서는 두 시간씩 집중해서 낭독해도 청중과 함께 고요히 몰두할 수 있었는데, 그런 순간을 만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내 뇌는 재편되어 버리는 걸까? 이렇게 독서 근육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

다행인 것은, 문을 닫았을 때도 도서관은 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출/반납창구나 그 안에 머물며 책을 읽는 공간은 가다서다를, 아니 열다닫다를 반복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다양한 분투가 벌어진다. 온라인 강의를 기획해서 열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궁리한다. 덕분에 참가하게 된 프로그램이 남산도서관의 [고독한 독서가]다. 이런 이벤트가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기념품 욕심에 신청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꽤 좋은 시간을 보냈다.

[고독한 독서가]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하다. [Zoom] 프로그램을 켜놓고 두 시간 동안 책을 읽는 것이

다. 접속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는다. 책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다. 결과 보고도 없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이후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두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 듯했지만, 그 사이에 한 권의 책을 마저 읽고 새 책을 꺼냈어야 할 만큼 몰입도는 대단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느낌과는 달랐다. 개인적인 행동인 '독서'가 어쩌서 함께 있다는 느낌에 이토록 영향을 받는 것일까?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도 어리둥절했다. 여운은 오래 갔다.

[Zoom]을 켜놓고 각자의 집에서 각자 좋아하는 술과 안주를 펼쳐놓고 따로 또 함께 술자리를 갖는다는 건 소문으로 들었다.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애잔하기도 한 얘기였다. 같이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교육지책 같아서였다. 그러나 같이 있는 듯, 같이 없는 신묘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확실히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었다. 함께 없으나 함께 있는 시간. 그것은 강의든, 독서든, 음주든 모두 좋았다. 현실에서 대면하는 것을 대체해주는 시스템으로써의 [zoom]은 그저 대체품의 자리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상한 방식이지만, 대단한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 후에도 종종 나는 지인들과 [zoom]을 열고 같이 독서하는 시간을 가졌다. 책을 읽는 동안 화면 저편에서는 누군가의 고양이가 지나가고, 혹은 차를 가지러 잠깐 자리를 비우는 이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그 시간만큼은 책이 나를 장악한다. 유튜브에는 자기가 공부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찍어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그 사람도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일까? 불특정 다수의 청자가 함께 있다는 느낌이 공부 효율을 높여주는 것일까? [Zoom]으로나마 함께 하면서 나는 다시 독서 리듬을 찾았다. 책이 나를 가만히 쥐었다가 놓아주는 그 느낌을 온전히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고독한 독서기]로 함께 책을 읽은 후 한 달쯤 뒤,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다길래 [고독한 독서기] 완주 기념품을 받아 왔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였다. 일부러 의도한 선물은 아니었겠지만, 상자에서 기념품을 꺼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책을 읽는 우리가 서로 접촉하고 있지만 접촉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책과 나밖에 없는 듯한 그 순간에조차 어디선가 책을 읽고 있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그렇다. 직접적으로 손을 맞잡지 않는다고 해도,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일종의 손을 잡는 행동이니까.

이전에도 고독한 독서방은 오픈채팅의 형식으로 존재해 왔다고 한다. 함께 읽는 시간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종종 자신이 읽고 있는 부분을 찍어 올리는 형식으로 지금 책을 읽고 있음을 알리는 방식이었다. 책을 읽는 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려고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저, 혼자서 책을 읽는 시간에 혼자서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고독한 행위처럼 보이는 독서야말로 사실은 누구보다도 공감할 사람을 찾는 행동인 것은 아닐까. 그리고 보면 독서라는 행위 자체는 공감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 저자가 책을 쓰는 것부터가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독자를 찾기 위해서니까.

[고독한 독서기]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나는 '독서공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책은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외로울 때 책은 어느 누구보다 좋은 친구가 되어 준다. 그러나 독서는 내 생각보다 더 공간을 많이 타는 행위다. 타인에게 열려 있는 행위다.

나부터 그랬다. 코로나19 이전, 나는 책을 읽기 위해 카페에 가고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바로 나오지 않고 열람실 커다란 책상에 붙어 앉아 책을 읽곤 했다. 카페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러 갔다. 집 밖으로 나설 때마다, 낯선 공간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을 상상하며 몇 권이나 가방에 넣곤 했다. [책듣는밤]도 책을 빙자한 행사의 자리라기보다는 책을 읽는 또 다른 공간이었다. 굳이 책에 대한 내 느낌을 설명하며 이야기 나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책 읽는 자리에 누군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같이 독서하고 있다는 동질감에 충만했다.

코로나19는 공공 서비스망의 혜택을 절절하게 느끼게 해준 것만큼이나, 독서가 얼마나 장소를 타는 행위인지, 타인을 필요로 하는 행위인지 알려 주었다. 책만큼이나 탁상용 조명이나 책꽂이 등 독서공간을 위한 도구가 많이 팔렸다는 사실은 책을 읽는데 공간이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좋은 조명과 편안한 의자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독서가 “대화”라는 것은 단지 생각과 의견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체온’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코로나19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삶을 지배할 것이라는 전제는 안타깝지만 어쨌든 일상은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 [책듣는밤]도 새로 생긴 북카페에서 80회를, 오랜 동네의 탁구장에서 81회를 하고 한해를 마감하기로 결정되었다. 언젠가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얘기다. 예전과 다를지 몰라도 또 예전과 비슷하게 우리 삶은 흘러갈 것이다. 책을 읽고 책에 대해 얘기하고 책을 권하고 책을 읽어 주고 책을 쓰는 것은 똑같겠지만, 함께 한다는 느낌은 조금 변한 채로 그렇게. 독서의 기쁨은 문득 더 풍부해진 채로 그렇게.



책을 읽다 zoom을 통해 잠깐 눈이 마주쳤다.



[고독한 독서개] 기념품으로 받은 무선 충전기

박사(북 칼럼니스트)

각종 신문잡지에 책과 문화와 관련한 글을 기고하고, 다양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책을 소개해왔다. 현재 조선일보, 법보신문, 우먼센스, 더 네이버, 미르에 서평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치킨에 다리가 하나여도 웃을 수 있

다면, [은하철도999_너의 별에 데려다줄게],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빈칸책], [지도는 지구보다 크다], [도시수집
가], [나에게 여행을], [여행자의 로망백서], [가꾼다는 것] 등이 있다.

[인터뷰]
마포에서 시작된 출판계 희망의 불씨
- 김현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장

2020. 11.



©타별사진관

마포구는 출판업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지속되는 출판계 불황과 임대료 상승 등 복합적인 사정으로 여러 출판사와 출판 관련 창작자들이 마포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마포구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바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를 개관하여 사무실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제공하며 출판 창업자와 창작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 그 중심에서 이를 지휘하며 출판계의 새로운 기초를 다져 나가고 있는 김현호 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마포구는 창업 초기 출판사와 스타트업, 1인 창작자 등 출판 분야 종사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이하 플랫폼P)를 개관했습니다. 먼저 플랫폼P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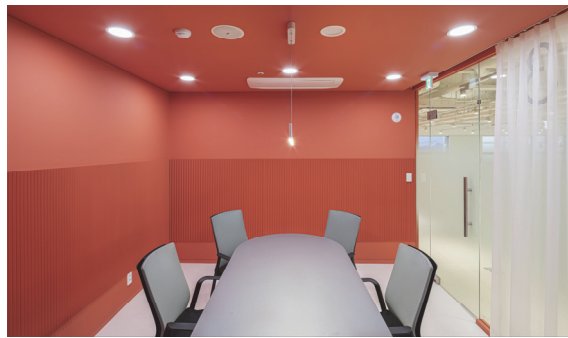
플랫폼P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소규모 출판사와 출판 생태계의 다양한 작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에서 설립한 창작 공간입니다. 홍대입구역 민자역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730여 평가량의 규모입니다. 시설의 절반 정도는 입주 창작자를 위한 공간으로, 나머지 절반은 강의와 세미나실, 코워킹 스페이스,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편집실, 라운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간의 구성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플랫폼P의 가장 큰 특징은 책을 쓰고, 만들고, 읽는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성입니다. 즉 위층에는 50여 명(팀)의 창작자가 작업에 몰두하고, 아래층에서는 출판에 관련된 세미나와 교육, 시민 대상의 문화 행사가 열리며, 나아가 뉴미디어와 결합한 새로운 출판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플랫폼P는 시설과 공간 여건을 바탕으로 작은 출판사와 출판 관련 창업자가 직접 시민들과 함께 섞일 수 있다는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출판 산업의 역사가 깊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마포구청은 출판·인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작은 출판사가 마포구, 특히 홍대 인근에 사무실을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포구는 출판 제작과 물류의 중심지인 파주와 대형 서점이 밀집해 있는 종로를 연결하는 축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판은 편집자 외에도 작가와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사진가 등 다양한 영역의 작업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홍대 인근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작업자들이 왕성히 활동하여, 출판사와 디자인 스튜디오, 사진가와 작가의 작업실이 함께 어우러지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임대료와 출판 불황 등으로 인해 작은 출판사와 작업자들이 하나둘 홍대와 마포를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가 없다면 홍대 인근의 문화예술과 산업 생태계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포구에서 출판과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출판은 다양한 영역의 작업자가 이끄는 산업이기도 하니까요.



©타별사진관

마포구는 옛 마포구 청사 제3별관 부지에 ‘출판·인쇄 스마트앵커’를 짓는 등 출판·인쇄 산업의 부흥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포구는 단발성 창업지원이 아닌, 출판 관련 창업자들의 성장주기에 맞춘 일종의 ‘스케일 업’ 형식의 지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랫폼P는 출판문화와 관련된 창작과 창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업공간과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큐베이팅과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작은 출판사와 출판문화 관련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경의선책거리 등 지역문화자원은 주민과 밀착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가까운 지역 서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는 홍익대 인근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한 도심 제조업 육성을 위한 공간입니다. 즉 디자인과 출판, 인쇄업 등이 밀집한 도심에 기획과 생산, 유통 단계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스케일-업(Scale-Up)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의 출판사를 비롯한 소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앵커는 플랫폼P와도 연계하여 마포구에 특화된 출판·인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마포구에서 구상하고 시행하는 방안이 실현된다면 출판계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관련해서 플랫폼P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창업 출판사와 관련 생태계의 작업자에게 교육과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판 창업 경험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출판 산업은 대단히 까다로운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어 도매상이나 대형 서점 등을 기반으로 한 유통 구조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반면, 크라우드 펀딩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독자와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편집뿐 아니라 디자인, 인쇄제작, 전자책, 영상 편집 등 알아야 할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한정된 시간과 자원으로 인해 출판 창업자는 금방 방전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 창업 공간은 본질적으로 교육 기관의 성격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역할을 플랫폼P가 수행하려 합니다. 물론 민간이나 공공 영역에서 이미 다양한 출판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과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플랫폼P는 주로 기존 출판사의 재직자나 출판계 진입을 원하는 이들보다는 초기 출판 창업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특히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선배 창업자와 입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설계하고, 출판 인접 분야 작업자들을 입주자로 모셔 교류함으로써 출판 창업의 난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플랫폼P의 창업 초기 출판사 및 스타트업, 1인 창작자 선발 기준과 지원 방식, 그리고 지원 범위 등이 궁금합니다.

공공의 재원을 배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재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명한 작업자라고 해서 선정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공간과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P의 첫 선발은 길지 않은 모집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목을 끌었습니다. 250여 명(팀)이 지원하여 경쟁률은 5:1을 넘겼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출판 창업자, 편집기획자, 디자이너,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 서점인, 출판 관련 기관과 협회 종사자에 이르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심사 기준은 현재의 역량뿐 아니라 발전 의지, 시장에서의 생존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로 대학생에서부터 오랜 경력의 편집자,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1인 출판사, 작가, 저작권 에이전트,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출판 관련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우수한 입주 창작자들과 외부의 작업자들이 교류하며 서로의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세미나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P가 입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 사업은 섬세하게 설계된 교육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독자를 만나고, 또한 자신의 콘텐츠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플랫폼P가 입주사를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지원 프로그램들을 설계하는 과정에도 언제나 그런 문제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플랫폼P의 계획과 방향, 출판계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 출판사와 창작자가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플랫폼P의 스태프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에디터들과 출판 창업 경험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출판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P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디테일입니다. 똑같은 강의나 세미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입주사들, 플랫폼P와 인연을 맺은 다양한 작업자들에 대해 저희는 일종의 동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창업에 성공하고, 계속해서 즐겁게 출판과 창작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우려 합니다.

무엇보다 입주사가 아니더라도, 출판 창업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가려는 창작·창업자에게 일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십만 부를 찍는 베스트셀러를 내는 출판사가 수십 곳 있는 생태계와, 수천 부를 찍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출판사들이 수천 곳 있는 생태계 중 어느 곳이 건강하기를 묻는다면, 저는 단연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작고 단단한 출판사들을 세심하게 지원해서 성장하도록 돕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출판계 전체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판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출판계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서정가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발을 내딛는 작은 출판사의 입장에서, 도서정가제가 2014년 이전으로 후퇴한다면 새로운 책을 기획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미 제작비용을 회수한 과거의 베스트셀러가 반값 이하로 시장에 계속 폭격하듯 쏟아진다면, 작은 출판사의 신간이 그것들과 경쟁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신간 출간이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은 사실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크고 작은 출판사와 서점, 웹툰과 웹소설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잘 반영된 좋은 정책이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계의 노력에 대해서는, '출판계'라고 하면 지나치게 방대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작은 출판'에서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출판계의 작은 주체들은 대체로 약자인 경우가 많아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오히려 둔감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외주출판노동자들과 협업할 때 알고 지켜야 할 노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매체를 다루는 입장에서 젠더 문제와 소수자에 대한 감각을 보다 더 예민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P는 작은 출판사, 창작자들과 함께 이러한 점을 보완해 나가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김현호(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장)

계원예술대학 H-CENTER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편집팀장, DGIST EPUB3 전자교재 개발 실무 총괄, 보스토크 프레스 대표 등으로 일하며 다양한 출판물을 만들어 왔다.

[책과 공간 2]
일(Work)과 삶(Life)의 균형, 책문화공간
열린숲도서관

2020. 11.

도서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정숙을 요구하는 분위기, 조용하고 묵직함에 어딘지 경직된 듯한 분위기가 떠오르지는 않나? 대한민국 기술 혁신의 선두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도서관과는 조금 다른 도서관이 있다. 바로 '열린숲도서관'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독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아이와 함께 방문해 그림책을 읽어 주기도 하는 열린숲도서관은 기업 건물 내에 위치한 국내 최초 도심형 도서관으로서,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기도 한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 한 줌의 여유를 선사하는 안락한 공간, 열린숲도서관으로 떠나 보자.



열린숲도서관 전경 (사진 출처: 열린숲도서관)

디지털숲에 환히 열린 책길

삼성IT밸리 1층 로비에 소재한 열린숲도서관은 (재)우리도서관재단과 삼성IT밸리운영위원회가 함께 개관한 의미 있는 책문화공간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삭막하고 분주해 보이는 디지털단지 빌딩숲에 여유로움이 가득한 책문화공간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의 사내도서관과 다르게 기업과 재단이 함께 도서관을 운영하며, 건물에 입주한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개방해 독서인구 증진에도 힘을 보태고 있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열린숲도서관은 주말과 국가공휴일, 국가 지정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도심 속 숲을 테마로, 도서관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직장인이 일(Work)과 삶(Life), 그리고 충전(Play)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곳이다. 최근 여러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작은 도서관 혹은 북카페 형태의 공간을 마련하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일상 곳곳에 책문화공간이 별도로 생겨나는 까닭은 바쁜 일상 가운데 지친 삶을 돌보며, 마음의 위안과 휴식을 주고 삶의 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다른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다양한 책이 비치되어 있는 서가 (사진 출처: 열린숲도서관)

열린숲도서관에는 다양한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아동도서부터 성인도서까지 보유 장서 폭이 굉장히 넓으며, 그 수가 무려 10,453권(2020년 10월 14일 기준)에 달한다. 그중 문학이 장서 구성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문학 도서는 출판연도를 불문하고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종류를 소장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경영 영역에 속하는 사회과학 도서가 많다. 사회과학 도서는 경제/경영, 자기계발, 경영전략/혁신, 인터넷마케팅, 투자/재테크 등 큰 범주에서 '경제/경영' 카테고리에 맞게 주제 전문 서가를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여름,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와 같은 세계 곳곳의 기후이상현상과 연결하여 전 세계적 관심사인 기후위기와 관련된 책을 큐레이션한다. 또한 2014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우리가 사는 동네 곳곳에 생기고 있는 작은책방에 주목하고,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자 1인

독립출판물도 큐레이션하고 있다. 열린숲도서관의 영문 명칭(Open Forest Library)에서 따온 FOREST의 스펠링을 근간으로 Food(먹거리), Occupation(직업), Rest(충전), Eco(친환경), Smart(스마트산업), Travel(여행)이라는 주제별 북큐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한다. 도서관 문 앞 전시 서가에서 진행되는 주제별 북큐레이션은 쉽게 눈에 띄고, 주제 또한 흥미롭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책과 세심한 큐레이션으로 이루어진 열린숲도서관은 삶에 지친 직장인에게 힐링을 주는 안락한 문화공간이다.



기후위기 큐레이션 서가 (사진 출처: 열린숲도서관)

형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혁신으로

열린숲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적인 도서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현 사회적 추세에 맞게 도서관 내에서는 독서뿐만 아니라 대화,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카페테리아에서 차나 커피를 마시며 독서를 하는 이용자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회의용 책상이 마련되어 있어 독서와 함께 소통을 유도한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은 덤이다. 이는 IT, 경제산업이 밀집된 구로디지털단지의 바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동료와 자발적 독서 토론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직장 근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방문하여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기도 하고, 아예 아이디어 회의와 같은 업무 미팅을 하기도 한다.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기대해 온 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열린숲도서관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 내 카페테리아 (사진 출처: 열린숲도서관)

직장인과 더불어 구로디지털단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이용도 활발하다. 주로 점심시간에는 직장인이, 점심 이후 오후 시간에는 주민들이 이용한다. 공공도서관까지 가는 데 거리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열린숲도서관에 방문하여 자녀와 함께 그림책과 보고 싶은 책을 대출하기도 하고, 구로구의 지원을 받은 도서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가장 눈에겨볼 점은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춘 이상적인 책문화공간이 있다면 열린숲도서관이 아닐까.

현재 열린숲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 수칙에 따라 제한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독서 열기는 막지 못하고 있다고 열린숲도서관은 말한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독서는 SNS를 통한 7days 7cover 독서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며, 지친 마음에 위안을 주고, 위기 상황을 지혜로 전환하는 매개체가 되어 주고 있다. 특히 비대면 독서 환경은 오디오북, 전자책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의 형태와 아날로그 도서관이 공존해 여전히 독서는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다. 열린숲도서관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유연히 마주친 한 권의 책이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강한 힘이 있다고 말하며, 이 국란을 헤쳐나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열린숲도서관 또한 새롭게 활기를 띤 모습을 찾기를 기대한다.

지역 내 낙원이 되는 도서관

구로디지털단지 유일의 책문화공간인 열린숲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발전 측면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 바로 책 나눔 활동이다. 사회적 이슈와 FOREST 키워드 기반 주제별 북큐레이션과 함께 소장 가치가 높은 도서를 선정하여 전시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나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나눔 활동은 북큐레이션과 함께 지역 내 독서인구 증진에도 힘을 보태며, 나눔을 통해 제한된 서가 공간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진다.



주제별 키워드 전시 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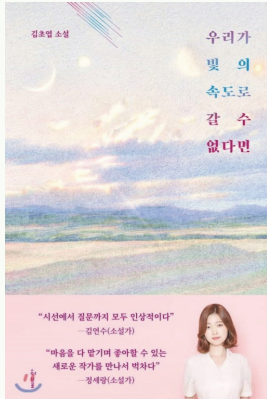
소장 도서 나눔 서가

(사진 출처: 열린숲도서관)

책이 있고, 소통이 있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우리 삶의 터전에 오랫동안 존재해 온 도서관일 것이다. 아르헨티나 소설가이자, 국립도서관장을 역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지상 최대의 낙원은 도서관”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앞으로도 열린숲도서관이 지역 내에서 책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책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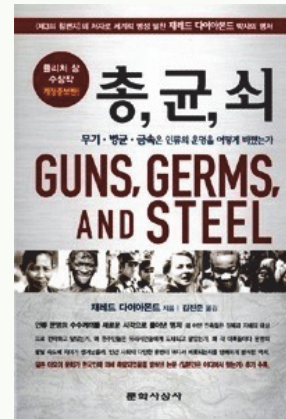
열린숲도서관 추천 도서

열린숲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직장인 베스트도서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2019, 허블), 『총, 균, 쇠』(2013, 문학사상사), 『플랫폼 자본주의』(2020, 킹콩북)이다.



먼저 소개할 도서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다. 이 책의 가장 처음에 실린 단편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는 뛰어난 과학자 릴리 다우드나의 유전자 편집 기술 개발로 유전자 선택이 가능해진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함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계 밖으로 밀려난다. 이들은 결함이 있는 아이들로만 구성된 마을을 생성하는데, 그곳에는 차별, 혐오를 포함한 사랑까지 모든 감정이 부재하다. 평화로운 마을이지만 일부 아이는 성년이 되면 떠나는 순례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는 시대가 바뀌어도 외로움, 쓸쓸함, 인간 소외 문제는 변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독자로 하여금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준다.

다음으로 소개할 도서는 『총, 균, 쇠』이다. 진화생물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저술한 이 책은 각 대륙의 문명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인종적 민족적 차이가 아닌 환경적 요소 때문이라고 짚는다. 이와 함께 생태지리학, 생태학, 유전학, 병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등 여러 학제적 요소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며 인종주의적 이론을 무너뜨린다. 방대한 분량이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팬데믹 시대에 찬찬히 들여다보기 좋은 도서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도서는 닉 서르닉이 저술한 『플랫폼 자본주의』이다.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플랫폼 경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자본의 행위와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경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유화된 플랫폼이 유발하는 반사회적, 반생태적 결과뿐 아니라 이에 저항하는 플랫폼 자본의 현실을 진단하며, 더 나아가 플랫폼 공동의 미래에 대한 대안적 통찰을 제공한다.

[해외통신/중국]
중국 웹소설 시장 현황과 웨원그룹

김택규(숭실대학교 중어중문과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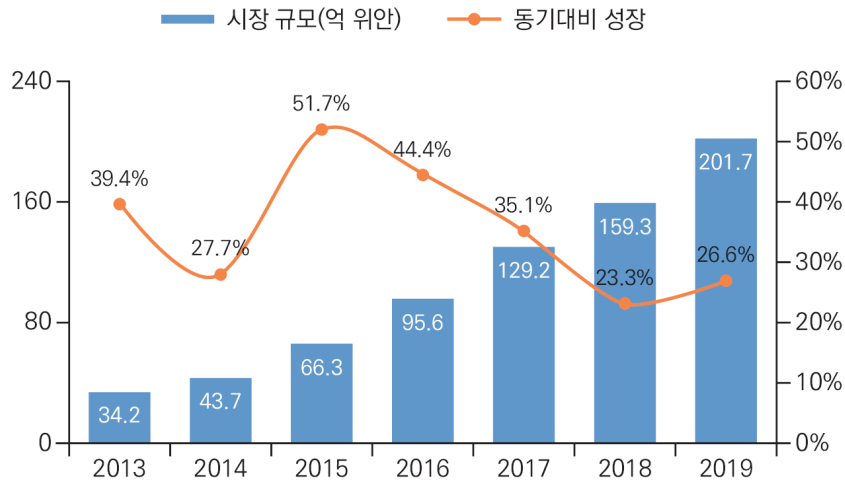
2020. 11.

중국의 웹소설은 대략 2000년 전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개인이나 동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종이책의 내용을 타자 쳐서 올리는 형태에 불과했다. 그것들은 대부분 김용과 고룡(古龍)의 무협소설과 황역(黃易)의 판타지소설, 경요의 로맨스소설 같은 당시의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면 독자들이 그런 책을 다 읽은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몇몇 독자들이 “더 이상 읽을 작품이 없으니 이제 내가 쓸 수밖에!”라며 직접 글을 써서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중국 웹소설의 원형이었다. 그 후로 전문적인 문학 사이트가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그중에는 오늘날 중국 최대의 웹소설 종합 플랫폼, 웨원(閱文) 그룹의 전신인 치뎬중문망(起點中文網)도 있었다. 그리고 2003년 치뎬중문망이 최초로 유료서비스 모델을 출시하면서 비로소 웹소설 산업 발전의 물꼬가 트였다. 처음에 독자들은 왜 돈을 내고 웹소설을 읽어야 하는지 의아해했다. 당시 작가들이 대부분 취미로 글을 써서 올렸고 실제 수입은 종이책 출판을 통해 거뒀기에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유료서비스 모델이 점차 웹소설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되고 일정한 수입이 유인 요소로 작용해 전업 웹소설 작가와 대형 히트작이 양산되면서 중국 웹소설 산업은 그 후로 현재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웨원그룹의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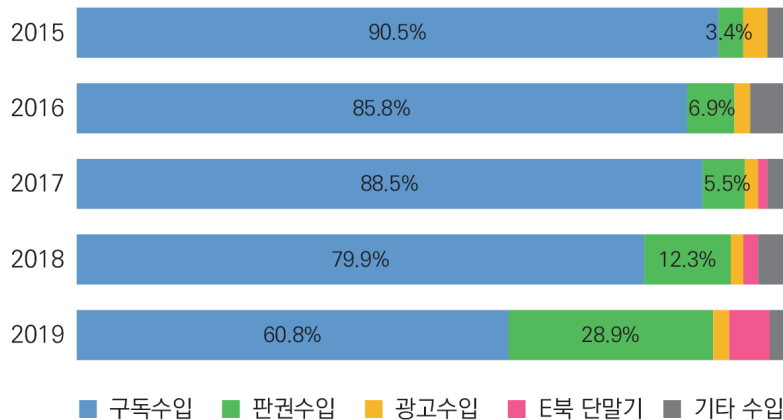
중국 웹소설 시장 규모 상황



출처: 중국 음원·디지털출판협회(中國音像與數字出版協會)

올해 9월 6일 중국 사회과학원이 조사, 발표한 『2019년 중국 인터넷문학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웹소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인터넷문학의 작품 수량은 2,590만 1,000종에 달했고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으로 각색된 작품 수는 모두 9,656종이었다. 그리고 작가 수는 무려 1,936만 명, 인터넷문학 총 시장 규모는 위의 표에서도 보이듯이 201억 7,000만 위안(한화 약 3조 4,289억 원)이었다. 2010년 100만 명을 헤아리던 작가 숫자가 20배 가까이 뛰었고 2013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시장 규모는 같은 해 한국 웹소설 시장 규모 4천억 원의 8배가 넘었다. 물론 중국의 인구가 한국 인구보다 27배 이상 많긴 하지만 1인당 GDP는 중국이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역시 놀라운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웹소설 시장이 한국보다 일찍 유료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산업화의 단초를 보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어 여러 대형 플랫폼이 등장함으로써 웹소설 작가와 독자 모두 저변이 넓어졌으며 2015년에는 공룡 IT기업 텐센트가 주요 플랫폼들을 인수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 그룹 웨원그룹을 출범시키면서 산업의 매출구조가 크게 혁신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아래의 표를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 웹소설 업계 매출 구조 상황



출처: 중국 음원·디지털출판협회(中國音像與數字出版協會)

2015년 3.4%에 불과했던 판권 수입이 2019년에는 28.9%까지 증가했다. 독자들의 정액제 이용이나 회별 구입에서 발생하는 구독 수입은 2015년 90.5%였던 것이 2019년에는 60.8%까지 떨어졌다. 이 밖에 광고 수입과 기타 수입은 본래 비율이 적었으며 아마존 킨들과 한왕(漢王) 등 전용 e북 단말기와 제휴로 발생하는 수입은 최근 3년간의 성장 속도가 꽤 빠르기는 했어도 전용 e북 단말기의 수요 한계로 인해 향후 큰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중국 웹소설 업계 매출 구조의 가장 큰 변화는 판권 수입, 즉 출판사, 영화·드라마 제작사, 애니메이션 제작사, 게임 업체, 문구 업체 등을 상대로 한 2차 저작권 판매 수입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근본적으로 원 소스 멀티 유즈와 콘텐츠 상류(웹소설, 웹툰, 영상)에서 하류(게임, 음악, 파생상품)로의 범(泛) 엔터테인먼트 생태계 형성이 전 세계 콘텐츠 업계의 보편적 추세가 된 데에서 기인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국내에서 웨원그룹이 펼친 과감한 인수 합병과 새로운 경영 전략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2018년 총 매출 83억 5,000만 위안을 기록해 중국 웹소설 시장 점유율 52.4%를 기록한 웨원 그룹은 이미 당해 연도 2차 저작권 관련 매출이 44억 2,000만 위안으로 총 매출의 52.9%에 달했다. 2018년도 중국 웹소설 업계 전체의 해당 수치가 겨우 12.3%였으니 평균보다 무려 4.3배나 높았던 것이고 이를 통해 웨원그룹이 구독 수입보다는 2차 저작권 수입을 중시하는 경영 전략을 선구적으로 펼쳤음을 엿볼 수 있다.

웨원그룹은 2013년 9월 텐센트문학(騰訊文學)으로 처음 웹소설 업계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저작권 확보에 대한 야심을 선보였다. 우선 남성향 플랫폼 창스(創世)중문망과 여성향 플랫폼 윈치(雲起)서원을 세워 작가들을 모으는 한편, 당시 중국의 국민 메신저 QQ와 연계하여 모바일 앱 QQ열독을 출시함으로써 웹소설 감상을 위한 최적의 사용자 환경을 갖췄다. 그리고 2014년 12월, 중국 웹소설 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사건이 일어난다. 창립 1년이 갓 넘은 텐센트문학이 당시 업계 1위의 웹소설 플랫폼 그룹 성다(盛大)문학을 인수 합병한 것이다. 인수는 50억 위안(한화 약 8,500억 원)이었던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써 텐센트문학은 성다문학 산하의 치덴중문망, 샤오상(瀟湘)서원, 홍슈텐상(紅袖添香), 소설열독망, 중즈보원(中智博文), 화원텐샤(華文天下) 등의 막강한 웹소설 플랫폼과 출판 기획사들을 고스란히 흡수해 업계 최강의 작가군과 최다 웹소설 저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듬해 3월 웨원그룹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2020년 현재, 웨원그룹은 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百度)의 온라인 백과사전에서 '중국 최고의 디지털 독서 플랫폼 겸 문학 IP 육성 플랫폼'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IP(Intellectual Property)는 본래 지식재산권이라는 뜻이지만 중국 콘텐츠 업계에서는 흔히 다른 형태의 문화 상품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원천 콘텐츠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IP 드라마와 IP 영화는 인기 원작의 스토리를 각색해 만든 드라마와 영화를 의미한다. 중국 콘텐츠 업계에서 IP의 인기는 2015년부터 폭발했다고 평가되는데 예컨대 2015~2019년까지 중국 드라마 중 60% 이상이 IP 드라마였고 또 그중 대부분이 궁중 로맨스, 타임슬립, 무협, 판타지 등 웹소설 IP의 저작권을 구입, 각색한 것이었다. 특히 2018년에는 인기 드라마 TOP 10 중 6편, 2019년에는 TOP 8 중 6편이 IP 드라마여서 많은 물량에 비례하는 높은 인기를 과시했다. 이에 따라 인기 IP의 저작권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2019년 웨원그룹 플랫폼의 웹소설 6종의 게임 각색권이 경매를 통해 총액 2,800만 위안(한화 약 47억 6,000만 원)에 낙찰되었고 나아가 같은 텐센트 계열의 만화 플랫폼에서 연재된 웹툰 『시형(尸兄)』의 전체 저작권이 사상 최고가인 5,000만 위안(한화 약 85억 원)에 양도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물론 모든 IP가 이렇게 고가이지는 않지만 한 해 중국 내에서 거래되는 IP가 무려 1만 건에 육박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모든 웹소설 플랫폼이 저작권 수입을 위해 상업성 있는 IP를 기획, 개발, 판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확실히 웨원그룹은 2015년 설립 후 현재까지 남성향 플랫폼 치텐중문망과 여성향 플랫폼 홍슈텐샹을 중심으로 웹소설 플랫폼으로서의 아성을 더욱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9개 웹소설 플랫폼에 모두 저작권 협업 파트를 설치하고 전문 저작권 에이전트를 배치해 '문학 IP 육성 플랫폼'의 성격을 강화했다. 그리고 월간 우수작 포상제와 독자 후원금 제도 같은 작가 복리 제도를 확충하고 2019년 한 해에만 15억 위안(한화 약 2,550억 원)의 고료를 지급해 소속 작가들에게 물질적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한편, '작가 조수(作家助手)'라는 모바일 저작 앱을 개발해 작가들이 효과적인 창작 도구로 활용하게 하고 있다. 적극적인 작가 육성이 곧 양질의 IP 육성과 직결된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웨원그룹 산하 신리미디어의 2019년 웹소설 각색 드라마 『경여년(慶餘年)』



웨원그룹 산하 치텐중문망의 최고 인기작 『고스트램프』

마지막으로 2018년 웨원그룹이 인수한 신리미디어(新麗傳媒)와 2017년 출시된 치덴중문왕의 영어 모바일 앱 ‘웹 노블(Webnovel)’의 존재는 웨원그룹의 향후 발전 전략을 점치게 해준다. 2007년에 설립된 신리미디어는 드라마, 영화, 웹드라마 제작과 연예매니지먼트, 해외 영상물 수입, 배급에 주력해온 중견 콘텐츠 기업으로서 2018년 중국 10대 드라마 제작사로 선정된 바 있다. 웨원그룹은 이 기업의 인수를 통해 웹소설 유통과 IP 육성, 판매를 넘어 직접 자체 보유 IP를 영상화하기 시작했다. 그 최초의 결실이 바로, 신리미디어가 2017년 치덴중문망에 연재된 웹소설을 각색, 제작해 2019년 방영한 가상 역사 드라마 『경여년(慶餘年)』이다. 이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웨원그룹은 향후 웹소설 연재, 유통에서 영상 제작, 배급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을 확고히 장악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웹 노블은 중국 문화의 세계 진출을 장려하는 중국 정부의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에의 부응인 동시에 웹소설 콘텐츠 수출의 실제 경로로 기능하고 있다. 주요 인기 웹소설을 영어로 번역해 이 모바일 앱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해외 독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2017년 웨원그룹의 CEO 우원휘(吳文輝)는 그룹의 홍콩 증시 상장을 완료한 뒤, “오늘날 중국 인터넷문학은 이미 미국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일본 애니메이션, 한국 드라마와 함께 ‘세계 4대 문화 현상’이다.”라고 밝혀 중국 웹소설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해외 진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 웹소설에서 중국 웹소설 『천재소독비』와 『학사신공』 등이 거둔 성공을 보면 그의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웨원그룹이 걸어온 길은 중국 웹소설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며 그들이 지향하는 미래는 한국 웹소설 산업의 전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쩌면 중국 웹소설 산업은 거의 유일하게 양과 질에서 한국보다 앞선 콘텐츠 분야이기에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유료 연재라는 서비스 방식과 판타지, 로맨스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장르소설의 성격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웹소설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웨원그룹과, 웨원그룹이 대표하는 중국 웹소설 산업의 발전 양상은 앞으로도 우리가 긴밀히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해외통신]에서는 웹진 <출판N>의 해외통신원들이 현지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소개합니다.

김택규(송실대학교 중어중문과 겸임교수)

1971년 인천 출생. 중국 현대문학 박사. 송실대학교 중문과 겸임교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중국 저작권 수출 분야 자문위원. 출판 번역과 기획에 종사하며 송실대학교 대학원과 상상마당 아카데미에서 중국어 출판 번역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번역가 되는 법(유유)』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이중텐 중국사(금항아리)』, 『죽은 불 다시 살아나(삼인)』, 『암호해독자(금항아리)』 등 50여 종이 있다.

[해외통신/독일] 코로나19가 독일 도서시장에 미친 영향

장성준(언론학박사,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 박사과정, 자유기고가)

2020. 11.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비일상적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한 해였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3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코로나19가 독일 도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월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3월: 라이프치히도서전 취소와 서점 임시폐쇄 결정

2020년 3월 3일 라이프치히시와 도서전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개막일인 3월 12일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이틀 전인 3월 1일 오전까지만 해도 도서전을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이었기에 이러한 결정은 관계자와 참가자에게 충격이 컸다. 도서전이 취소된 이유는 연방정부가 라이프치히시 보건당국에 대형행사 안에서 접촉한 사람들의 추적 가능성 보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서전 모든 참가자가 코로나19 위험지역 출신이 아님을 증명하거나 혹은 이들이 위험지역 출신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알리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51개국 출신 약 2,500개의 업체가 전시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며 예상 방문객 수가 대략 28만 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도서전이 취소되자 라이프치히 전역의 500개 장소에서 ‘Leipzig liest(라이프치히. 읽다)’ 행사의 일환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3,700여 개의 낭독회와 작가와의 만남 등 관련 행사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3월 당시 도서전 취소로 인한 참여사의 피해액은 약 1억 유로, 라이프치히시의 경제적 손실은 약 2,0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도서전이 취소된 전례가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던 1945년이 유일했던 것을 보면 이번 행사취소가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추측된다.

라이프치히도서전이 취소된 후, 3월 22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일 전역의 이동제한조치에 합의하면서 4월 19일까지 슈퍼마켓, 약국, 주유소 등의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소매점의 운영이 일시 정지되

었다. 연방정부의 결정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바이에른주는 3월 중순부터 소매점의 폐쇄를 결정했는데, 당시 독일서적상협회 측은 폐쇄대상에서 서점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월 16일 바이에른주 내 서점을 시작으로 독일 전역에서 서점 영업을 임시 중단되었고, 독일 서적상협회는 3월 17일, 중소기업서점이 받을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여 연방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4월: '세계 책의 날' 행사 연기 결정

코로나19로 인한 상점의 임시폐쇄는 4월 15일의 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완화되어 4월 20일부터 800㎡ 이하 크기 영업장의 운영이 재개되었다. 단 서점과 자동차 및 자전거매장은 예외로 규정해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서점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다. 독일서적상협회는 이를 환영하는 한편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연방문화미디어부에 재차 전달했다. 이동제한조치에 따라 시행되면서 4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세계 책의 날' 행사가 취소되고 일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취소된 행사 중 일부는 9월의 '세계 어린이날' 즈음으로 연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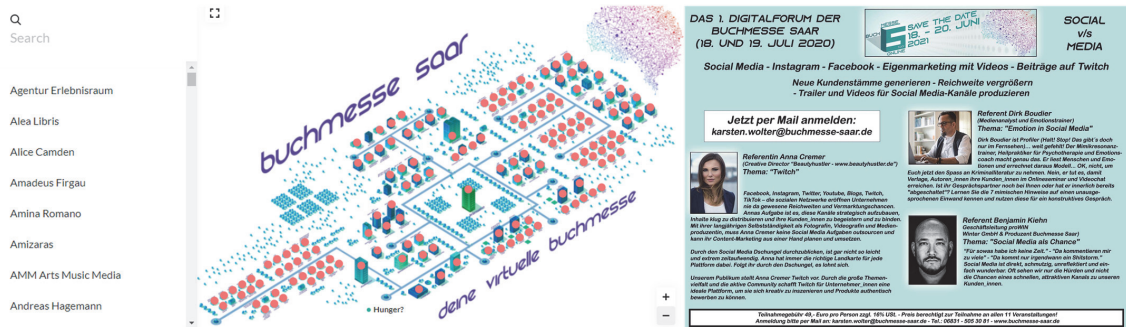
4월부터는 서점 폐점에 따른 도서 시장의 경제적 손실에 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시장조사기관 미디어 컨트롤(Media Control)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3월 독일 소매서점의 판매량은 2019년 3월과 비교해 하드/소프트커버는 32%, 문고판은 25%가 감소했고 여행서적은 60%가 줄어들었다. 임시 폐쇄 조치에 따라 서점의 오프라인 판매는 불가능했지만,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도서의 경우 3월 한 달 동안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전체도서 평균 가격은 3월 한 달 동안 2.5% 상승하였다. 4월 말 기준 여행도서는 32.9%, 논픽션은 20.4%의 매출 감소가 있었고, 그나마 아동과 청소년도서가 5%의 판매량 감소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매출이 증가한 분야로는 학습도서(10.9%), 인문학(4.2%), 철학(2.4%)이 있다.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독일 내에서 1/3분기 동안 판매된 도서량은 전년도 1/4분기에 판매되었던 도서량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약 4주간의 서점 임시폐쇄로 인한 서점들의 영업 손실액이 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기 때문이다. 대형 서점 체인인 탈리아(Thalia) 대표는 코로나19 조치가 풀린 당일의 매출이 전년도의 60~70%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준비위원회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연기는 없을 것이며 참가자 모집 기간을 5월 말까지로 연장, 10월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5월: 서점 영업 재개와 도서 판매량 회복

미디어 컨트롤이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업 재개 직전인 16주 차와 영업 재개 첫 주인 17주 차의 도서 판매량은 2.6배, 수익은 1.5배 증가했다. 전년 대비 매출에서 픽션은 13.4%, 아동과 청소년 도서는 4%의 매출 하락이 감지되었지만, 3~4월의 매출 하락률보다는 그 격차가 감소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여행 도서(34.5%)와 논픽션 분야(20.0%)의 매출 감소세는 이어졌다. 반대로 학습도서의 매출은 11.9%, 유아/유치원도서는 0.3%, 인문 분야 4.9%, 철학 분야 3.5%의 매출 증가가 집계되었다. 서점 영업 재개 효과는 3주 차(2020년 19주 차)에 들어서서야 괄목할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이프치히도서전 이후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여러 도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도서전의 취소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그러던 중 6월 19~21일 개최 예정이었던 자를란트도서전(Buchmesse Saar)은 도서전 취소가 아닌 온라인으로 모든 행사를 전환하기로 결정하여 눈길을 끌었다. 자를란트도서전은 독일 내에서 개최된 온라인 도서전의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자를란트도서전 예시(온라인 소개(좌); 프로그램 소개(우))
출처: 자를란트도서전 홈페이지(<https://buchmesse-saar.de/>)

6월: 독일서적상협회, 2020년 독일도서시장현황 발표

독일서적상협회는 6월 8일 '코로나 시대의 책: 시장예측(Das Buch in Zeiten von Corona: Perspektiven für den Markt)' 자료를 통해 1월~5월(1주~22주)까지의 도서 시장 매출 상황을 발표했다. 자료는 이동제한조치가 일부 주에만 적용되었던 12주(3월 16일~3월 22일)부터 16주(4월 13일~4월 19일)까지와 전체 주에 이동제한조치가 적용된 13주(3월 23일~3월 29일)부터 16주까지를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먼저 독일 내 12주~16주까지의 소매도서 거래는 전년 대비 59.5% 감소했고, 13주~16주까지는 전년도보다 65.7%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점매출은 12~16주 차 기간 동안 41.6%, 13~16주엔 46.0% 까지 하락했다. 이동제한조치가 있던 16주 차까지의 소매도서 누적 거래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21.1%가 축소되었다. 2020년의 17주 차부터는 소매도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18주 차까지 누적 판매량은 20.4% 감소세를 보여 격차가 소폭 줄었고, 5월 말인 22주 차에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가 17.5%까지 줄어들었다. 누적 서점매출은 전년 대비 1~16주 차까지 14.9%, 1~17주 차까지 14.4% 매출 하락이 측정되었지만, 상점 폐쇄조치 해제 이후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11.9%까지 격차를 좁혔다.

코로나19가 출판사의 출간계획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자료도 함께 공개되었다. 출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53.1%의 업체가 올해 출간계획이 있었던 도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응답했다. 33.9%는 발행일을 올해 상반기에서 가을로 미뤘다고 답했다. 35.6%는 출간계획을 아예 취소했다고 밝혀 코로나19의 영향이 컸음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출판사의 19.8%는 라이선스 도서의 구매를 줄였고, 10.2%는 인쇄 예정이었던 도서를 전자책으로 먼저 출간한 후 나중에 인쇄도서로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9.0%는 아예 인쇄도서 판매를 취소하고 전자책만 선택하여 제작했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출판사 중 코로나19가 출간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례는 28.2%에 불과했다.

독일서적상협회의 자료를 요약하면 (1) 코로나19로 인한 서점 임시폐쇄와 도서 관련 행사취소는 출판사와 서점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2) 낮은 이윤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진 기업이 위협을 받았으나 (3) 온라인과 배달서비스를 통한 도서 판매가 가능해졌기에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4) 온라인/디지털 독서이벤트가 시작되면서 도서에 관한 관심도 회복세에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5) 도서 시장의 뉴노멀(Neue Normalität)을 논의해야 함에도 관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시장에 대한 위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개최방식 결정

라이프치히도서전이 취소된 이후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개최방식이 최종 결정되었다. 연방문화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문화 분야의 지원을 위해 5,000만 유로 규모의 진흥사업 '문화의 새로운 출발(Neustart Kultur)'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중 400만 유로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을 통해 7월에 확정된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개최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온라인행사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홈페이지(www.buchmesse.de)를 통해 제공되며, 도서전 기간에는 해시태그 #fbm20을 사용하여 연결된 여러 채널을 통해 이벤트를 통합적으로 묶어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공영방송사 및 주요 협력 언론사를 통해서도 도서전 주요 행사를 중계한다. 10월 17일 BOOKFEST Digital에선 16시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생방송을 통해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오프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해 부스 설치 비용을 최대 50%까지 인하했고, 디지털 프레젠테이션 제작도 지원할 예정이었다. 도서전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저작권 및 라이선스 거래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여 행사가 종료된 이후 최대 9개월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한편, 오프라인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8~9월: 연방정부의 출판산업 지원사업 결정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오프라인 행사취소 결정

7월에 발표된 '문화의 새로운 출발' 진흥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7월 말부터 실현되었다. 7월 31일 500만 유로를 할당받은 '독일문학기금(Deutscher Literaturfond)'은 작가와의 만남을 위한 프로그램 후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소설 및 청소년문학 분야 작가와의 만남 및 고전문학 소개 등의 행사에 최대 1,000유로(인건비+부가가치세, 여행경비/숙박비)를 지원했으며 도서관과 문학관, 문화센터, 극장과 학교뿐만 아니라 서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8월 20일 연방문화미디어부에선 '문화의 새로운 출발' 사업 명목으로 2,000만 유로를 출판사와 서점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000만 유로가 할당된 서점지원 부문에는 도서 판매 디지털화를 위한 하드웨어 구입과 사용자친화적인 애플리케이션 운영, 온라인/모바일 판매를 위한 교육 등과 같이 오프라인 서점의 전자거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포함되었다. 전년도 매출 기준 200만 유로(도서 판매 수익 50% 이상) 이하의 서점이 지원 대상이며, 서점 당 최대 7,500유로가 지원된다. 출판사 지원 부문에도 역시 1,000만 유로가 할당되어 있으며 새로운 서적 발행에 대해 최대 7,500유로까지 지원된다. 시리즈물로 제작되는 서적은 1만 유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 연간 최소 세 편의 출판물(정기간행물, 사전, 카탈로그, 발행인의 개인 간행물 등은 제외)을 발행한 이력이 있고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다. 서점과 출판사 지원은 경쟁이 아닌 선착순으로 기금지원이 결정되는 방식을 따른다.

NEU START KULTUR

연방문화미디어부의 문화 분야 지원사업 로고
출처: <https://www.bundesregierung.de/>

9월 8일 유럽과 독일 내에서 여름 휴가철 이후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10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기준에 의해 8월 말까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오프라인 행사에 등록된 750개 회사의 참여와 방문객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주요 행사인 독일 도서상과 독일 서적상협회의 평화상, BOOKFEST 등은 계획대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유명 저자의 독자와의 만남 행사는 10월 14~18일 오전 10시~18시에 진행되며, 모든 대화는 생중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콘퍼런스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전환,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10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개최



모니카 그윈터 특임장관의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개막연설 화면

출처: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zOzewk_c1VGUsLF_zRa3cg)

라이프치히도서전의 취소로 오랜 기간 관심을 받았던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사전행사로 10월 12일 월요일 온라인 콘퍼런스가 제공되었고, 13일 공식 개막식이 열렸다. 공식 개막식은 제1공영방송 ARD의 채널과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되었다. 개막식 연사로 참여한 모니카 그린터 연방문화미디어부 특임장관은 올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성공을 기원하며 내년엔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출판사와 서점, 프랑크푸르트 및 라이프치히 도서전 등의 지원을 위해 2,500만 유로 상당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저자와 번역가를 위해 추가 예산 1,000만 유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개막 축하 연설은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가 맡았고, 문단 대표로 초청된 이스라엘 출신 작가이자 평화운동가인 데이비드 그로스만의 연설은 영상으로 대체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참여도는 높았다. 110개국의 4,400여 개의 업체가 디지털 전시에 참여했고, 총 750명의 연사가 260시간에 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BOOKFEST digital – weltweit zuhause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BOOKFEST' 소개 및 시청페이지

출처: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홈페이지

(<https://www.buchmesse.de/digitale-buchmesse/live-programm/bookfest-digital>)

비록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음에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예상보다 높은 성과에 온라인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행사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전 세계 2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가 공식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도서전을 이용했고, 103개국에서 4,400개의 업체가 디지털 전시에 참여했다. 전시업체들은 총 6,800개의 프레젠테이션 콘텐츠를 제출했는데, 주최 측은 이를 13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제공했다. 디지털 콘퍼런스는 전 세계 800여 명이 시청하여 예상인원 200명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거뒀고, 10월 17일 BOOKFEST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124개국의 시청자가 관련 동영상을 150만 회 이상 재생하였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중심행사인 저작권 거래 플랫폼엔 4,165명이 등록하였고, FBM20 회원이 31,100개,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플랫폼엔 40만 권 이상의 서적이 등록되었다.

맺으며

본문을 통해 소개한 8개월간의 사건들 외에도 크고 작은 도서전과 지역행사가 취소되었다. 중소기업의 지역 서점의 경영난에 관한 소식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서 시장에 닥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연방정부와 주정부, 협회 등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사례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나마 연방정부가 중소기업 서점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거래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면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도서 판매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출판사지원책으로 출간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도서의 출판도 지원하기 시작했기에 지난 3~4월과 같은 수준의 시장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서 시장의 회복은 긍정적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서점 임시폐쇄조치가 있었던 시기에 전년 대비 30%까지 매출이 급락했지만,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통해 알려졌듯이 4.3%까지 그 격차를 좁힌 것이 대표적이다. 흥미롭게도 코로나19 봉쇄조치 이후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도서 가격이 조금씩 상승한 것은 도서 구매와 독서가 일상화되어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가격보다 도서 내용 등 품질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독일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통해 대형 이벤트도 온라인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오히려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더 많은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이 도서전에 참여하는 성과까지 만든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비단 독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만 독일의 출판산업과 도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것은 독일 연방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산업계의 대응책이 마련되었고 도서 시장이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해외통신]에서는 웹진 <출판N>의 해외통신원들이 현지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소개합니다.

장성준(언론학박사,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 박사과정, 자유기고가)

중앙대학교 언론학박사. 현재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자 라이프치히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독일의 출판정책과 미디어정책과 관련하여 국내기관에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셜 미디어와 사회참여』, 『다문화 사회에서의 미디어역할(공저)』가 있고 국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출판 등의 분야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글로벌마켓 리포트

[프랑스] 새로운 한국 추리소설에 빠져들어

- 출판사 인터뷰 : 에디씨옹 싸에라, 에디씨옹 파요 에 리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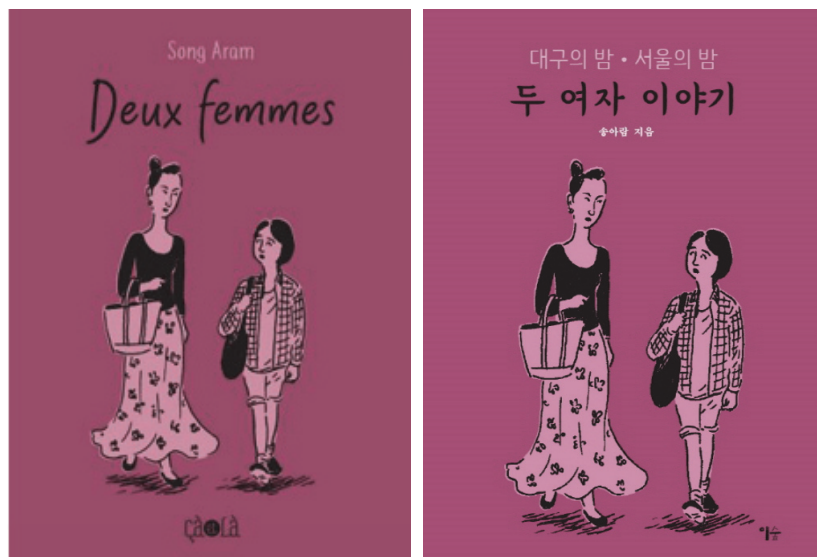
강미란(KPIPA 수출 코디네이터)

2020. 11.

한국 도서를 프랑스어로 출판한 '에디씨옹 싸에라(Editions ça et là)'와 '에디씨옹 파요 에 리바주(Editions Payot et Rivage)' 두 출판사의 담당자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 소설과 그래픽노블을 출간한 두 출판사에서 작품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출간하게 되었는지, 또한 프랑스 현지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자.

에디씨옹 싸에라(Editions ça et là)의 세르주 에벤크지크(Serge Ewencyk) 대표 인터뷰

- 송아람 작가의 『두 여자 이야기』 프랑스어 번역본 『Deux femmes(두 여자)』 출판



『두 여자 이야기』 프랑스어판(왼쪽) 및 한국어판(오른쪽) 표지

싸에라 출판사와 대표님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2005년에 싸에라 출판사를 시작했으니 올해로 벌써 15주년을 맞았네요. 우리는 외국 작가의 그래픽노블을 프랑스어로 번역해 프랑스 시장에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약 150권가량 됩니다. 22개국 약 80여 명의 작품을 출간하였지요. 저는 싸에라 출판사 창립자이기도 하고, 현직 대표이기도 하고 편집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출판사에서 내는 책을 제가 직접 고르고, 책을 만드는 작업에도 많이 관여하는 편입니다. 디자인이나 편집은 물론 외국 출판사와의 계약 문제와 행정, 회계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싸에라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 작품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송아람 작가의 『두 여자 이야기』를 『Deux femmes(두 여자)』라는 제목으로 2018년에 출간했습니다(<https://www.caetla.fr/Deux-femmes>). 이 작품은 한국에서 나오자마자 아주 좋은 평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2019년 프랑스 앙굴렘국제만화축제 공식경쟁 수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마침 앙굴렘국제만화축제에 송아람 작가를 초대했고, 앙굴렘은 물론 파리 서점에서도 작가와의 만남과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왜 송아람 작가의 『두 여자 이야기』를 선택하시게 되었나요?

일단 책의 테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의 현대를 살아가는 두 여자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라는 점이 마음에 끌렸던 것이죠. 몇 년에 걸쳐 두 친구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두 사람의 시선을 통해 그려내는 책이라는 점이 또 매력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시선에서 보자면, 이 작품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나 사생활에서 여성이 겪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작가의 그래픽적인 감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현실적인 그림, 까만색과 파란색으로만 그려내어 전체적인 분위기에 부드러움을 한층 더해주는 미적 감각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책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이 작품은 2017년 한국의 이숲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파리 근교 몽트레이유도서전에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번역가 한 분이 이 책을 저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닿아 이 책의 시놉시스와 프랑스어 샘플 번역을 읽게 되었지요. 그래픽적인 건 바로 볼 수 있었지만, 문체가 어떤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시놉시스와 샘플 번역을 읽고 바로 한국의 에이전시를 통해 판권을 샀습니다.

『두 여자 이야기』의 프랑스어판인 『Deux femmes(두 여자)』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픽노블을 출판하는 곳이 다 그러하겠지만 일단 우리 출판사의 라인업과 분위기가 맞는 책인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는 작가 개인적인 이야기나 현실에 깊이 부리를 내리고 있는 리얼한 이야기를 주로 내는 편입니다. 그 부분이 일단 싸에라 출판사의 라인업과 맞았습니다.

그렇게 판권을 샀고 번역한 텍스트를 입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느 출판사와 똑같은

겁니다. 책을 찍은 후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 각 나라의 배급을 맡은 회사에 책을 보내는 것이죠.

책이 시장에 나오기 한 달 전쯤 그래픽노블과 만화를 전문으로 하는 잡지 기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내고,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80개 서점에도 책을 보냈습니다. 만화 전문 서점과 FNAC 같은 대형서점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야 작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출판 관계자는 물론 서점 담당자들도 『*Deux femmes*(두 여자)』에 대해 이해를 하고 독자에게 추천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화 축제 참여나 팬 사인회 등의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앙굴렘국제만화축제 공식경쟁 수상 후보에 올라 작가를 직접 초청했고, 프랑스 주요 서점에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첫 번째는 언어적 장벽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번역의 질을 따져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번역가에게 모든 걸 믿고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번역가의 경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의 번역을 맡길 수 있는 실력 있는 번역가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또 다른 문제는 그래픽노블이라는 장르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군요. 아무래도 그림이 많다 보니 가끔 한국의 거리 모습을 담은 컷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간판이 보이는 그런 컷이요. 그러면 이걸 다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각주를 달아 설명할 것인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는 고민 끝에 결국 두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책을 프로모션할 때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늘 하는 프로모션 방법을 택하긴 했습니다만 아시아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에 콘택트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아 만화를 주로 다루는 잡지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고요. 작가가 앙굴렘국제만화축제 참여차 프랑스에 왔을 때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특별히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Deux femmes*(두 여자)』에 대한 프랑스 독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송아람 작가가 프랑스에 왔기 때문에 직접 독자를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프랑스 독자가 이 작품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 특히 그들의 어려움을 느끼고, 알게 되었다며 무척 인상 깊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독자가 한국 작품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이를테면 한국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든지,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등) 한국 책을 챙겨보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프랑스 독자는 일단 책 주제에 끌린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책 주제나 소재에 끌려 읽게 되다 보니 책의 배경이 한국이라는 점은 부차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 독자는 한국의 어떤 책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일단 한국 만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그래픽노블에 거는 관심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만화는 다이내믹하다는 걸 꼽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망가와와는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픽적인 면이나 테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유럽식 만화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한국 작품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 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 프랑스에 한국 만화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화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작가가 꽤 됩니다. 2000년 이후 데뷔한 작가가 특히 그렇지요. 대표적인 작가로는 2017년 앙굴렘국제만화제에서 수상한 앙고 작가가 있겠고요. 그래픽적인 측면이나 다루는 주제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 만화는 이런 거다!’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점이 한국 만화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작품을 또 출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2021년 프로그램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한국 작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송아람 작가의 또 다른 그래픽노블이나 아니면 다른 작가를 발굴하여 그의 그래픽노블을 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에디씨옹 파요 에 리바주(Editions Payot et Rivage)의 발랑탱 바이아슈 (Valentin Baillhache) 편집장 인터뷰

- 편혜영 작가의 『홀』 프랑스어 번역본 『Le jardin(르 자르댕 : 정원)』 출판



『홀』 한국어판(왼쪽) 및 프랑스어판(오른쪽) 표지

파요 에 리바주 출판사와 편집장님이 맡고 계신 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저는 파요 에 리바주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고, 잔느 기용 씨와 함께 ‘리바주/느와르’라는 컬렉션의 공동편집장이기도 합니다. ‘리바주/느와르’ 컬렉션은 추리소설과 서스펜스를 주로 다룹니다. 우리 컬렉션에서는 프랑스 작가와 외국 작가의 책을 1년에 약 15편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

는 유명한 작가로는 제임스 엘로이, 데니스 루헤인, 제임스 리 버크, 데이비드 피스,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 그리고 에르베 르 코르가 있습니다.

리바주/느와르에서 출간한 한국 작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2019년 10월에 편혜영 작가의 작품 『홀』의 프랑스어 번역본인 『*Le jardin*(르 자르맹 : 정원)』을 냈습니다. 부부 관계, 죽음, 그리고 집착이라는 소재를 다룬 작품으로 스티븐 킹의 『미저리』를 떠오르게 하는 심리호러물이죠. 교통사고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불구가 된 대학교수, 아내까지 잃어 많은 변화와 고통을 받고 있는 주인공 '오기'가 자기 집에 갇혀 살게 되는 이야기가 큰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자마자 반했어. 프랑스의 유명한 잡지인 '엘르'의 서평에 의하면 편혜영 작가의 『*Le jardin*(르 자르맹: 정원)』은 '불안하면서도 세련되고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펴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가디언」지에 나온 기사를 봤어요. 한국의 추리소설을 '뉴 스칸디 느와르(New Scandi Noir)'라고 소개하는 글이었죠. 그렇게 한국의 추리소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프랑스에 소개된 한국의 추리소설을 먼저 읽기 시작했어요. 김연수, 정유정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참신하고 상상력이 뛰어나며 뭔가 새로운 한국 추리소설에 곧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한국 작가를 아시아 컬렉션에 넣어 소개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추리/서스펜스' 컬렉션에서 소개하면 어떨까 하고요. 물론 아시아 작가라는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것도 무척 중요하고, 아시아 컬렉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리/서스펜스'라는 이름으로 작가를 소개해서 프랑스 독자의 관심을 끌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필립 피키에 출판사에서 소개하는 카탈로그를 읽다가 편혜영 작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2012년에 나온 『*Cendre et rouge*(재와 빨강)』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홀』을 알게 되었고, 저는 한국어 몰라기 때문에 우선 영어 번역서를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출판되어 셜리 잭슨 상까지 받은 작품이라 관심이 갔지요.

이 책을 펴내는 데 어떤 특별한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이 작품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번역지원, 출판지원 및 프로모션 지원까지 받은 작품입니다. 한국 문학을 널리 알리려는 한국문학번역원의 노력이 있었죠.

한국 작가의 작품을 프랑스에 알리는데 특별한 프로모션 전략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편혜영이라는 작가를 우선 추리/서스펜스 소설 작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서 제목 이라든지 책 표지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 책은 한국 작가의 한국어 책이라기보다는 아주 유능하고 가능성 있는 추리소설 작가 편혜영의 책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죠.

뒤표지에도 스티븐 킹의 『미저리』와 편혜영의 작품을 비교 분석한 미국 기사를 발췌해서 실었습니다. 이미 영화와 문학으로 유명한 한국 작품이라는 점이 프로모션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는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추리소설 축제인 '케 드 폴라'에서 한국 작품에 포커스를 맞추기로 했었지요. 불행히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긴 했지만요. 2021년에 꼭 열려서 한

국 추리소설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프랑스 독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편혜영 작가의 『*Le jardin*(르 자르댕: 정원)』은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많이 다뤘고, 서점 관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수천 권 이상이 팔리기도 했고요. 이 작품은 '기메 박물관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프랑스 독자가 한국 책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추리물이나 서스펜스물이 이제 프랑스에도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올드보이>와 <기생충> 덕분이기도 하겠지요. 프랑스 독자는 한국 책에서 바로 그런 특별한 분위기를 다시 찾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바로크풍'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장르와 톤이 뒤섞여 있거든요. 폭력과 아이러니, 기괴함과 유머, 뭔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뒤섞여 있어 신선함을 준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독자는 바로 그런 점이 좋은 것이지요.

프랑스 독자에게 관심을 끌 만한 문학 장르로 추리소설을 뽑으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추리소설이 프랑스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어떤 출판사에서는 한국 추리/서스펜스물만 전문으로 하는 컬렉션을 만들 예정이라고 들었으니까요.

앞으로도 한국 작품을 계속해서 출간할 예정이신가요?

물론입니다. 편혜영 작가의 작품은 계속 낼 생각이예요. 다음 나올 작품은 편혜영 작가의 『*La loi des lignes*(라 루아 데 린뉴 : 선의 법칙)』입니다. 이 작품은 『*Le jardin*(르 자르댕: 정원)』에 비해 한국적인 향이 더 많이 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 사회의 문제, 이를테면 가난, 빛, 자살 등에 대한 소재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 작품은 표지에도 한국적인 면을 살릴 예정입니다.



[글로벌마켓 리포트]에서는 미국·유럽·아시아 등 9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KPIPA 수출 코디네이터'들이 현지 출판시장 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전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리포트는 '출판수출지원-글로벌수출동향'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판수출지원 바로가기](#)

출판N Vol.16 2020.11

발행인 김수영

편집인 김영진

편집위원 백원근 이명석 이영미

기획/편집 정책연구통계센터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4866)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063)219-2700

홈페이지 <http://www.kpipa.or.kr>

웹진페이지 <http://nzine.kpipa.or.kr>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구독신청/문의 정책연구통계센터(063-219-2724)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